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좇아가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9월 29일)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비대면 일상화 시대 '포교 플랫폼' 뜬다

월정사, 사찰 첫 온라인방송국 개국 '눈길'

비대면 플랫폼 구축 잇달아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 선뵈
사이버 추모관도 개발 착수
"'수행+신행+제례' 플랫폼들
유기적 연계로 新신행 선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 대유행은 '비대면' 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정착시켰다. 이는 종교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불교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에 집중하며, 유튜브 법회 · 예불 등을 열며 적응해나갔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의 상황이다. 점진적 일상으로 전환이 이뤄지지만, 비대면에 적응된 신도들이 법회로 빠르게 돌아올 것으로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불교계는 기존의 대면 신행과 새로운 비대면 신행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비대면' 이 일상이 된 시대에 오대산 산중사찰인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가 최근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 '비대면 플랫폼' 들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정사는 "비대면 사회 속 불법홍포를 위해 전국 사찰 최초로 온라인 방송국인 'OWBN (Odaesan Woljeongsa Broadcasting Network, www.owbn.co.kr)' 을 개국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월정사의 온라인 방송국 'OWBN' 은 현재 월정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있는 사시불공, 〈금강경〉 지도, 참선 등의 콘텐츠를 한 곳에서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월정사에서 봉행되는 각종 법회와 스님 법문 영상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OWBN' 은 사중 스님과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일방적 정보의 방식이 아닌 소통 · 참여형 공간을 마련해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사찰과 소통하고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월정사의 목표가 그대로 담겨 있다.

사찰 불전함 보시와 기도 · 법회 운영도 'OWBN' 에 탑재된다. 현재 월정사는 온라인에 마련된 불전함에 기부하거나, 사찰 기도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김보훈 월정사 데이터센터 팀장은 "월정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과 신행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준비해왔다. 1차적으로 온라인 방송국을 대중에 선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월정사의 '비대면 플랫폼' 은 온라인 방송국만이 아니다. 월정사는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을 개발해 지난 8월 12일 열린 강원도 세계청소년명상주간에서 처음 선보였다. 10월 8일 개막한 오대산 문화축전에서는 학생 백일장 등의 행사와 월정사 화엄선문화연구소 제1회 국제명상세미나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월정사는 사이버 추모관인 '온라인 수목장(가제)' 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보훈 팀장은 "올해 초 선보였던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과 온라인 수목장 플랫폼은 현재 버전업 과정과 개발 중에 있다"면서 "해당 플랫폼들이 완성되면 월정사에서 이뤄지는 기도와 법회, 참선, 제례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상과 법회 · 신행, 제례로 이어지는 세 가지 플랫폼은 향후 유기적으로 연동되며, 이를 통해 신도 개개인이 온라인에서 스스로의 수행과 신행을 점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이제는 대면 신행활동과 비대면 신행활동이 함께 가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부처님과 선지식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수행하고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가정이나 일터 등 각자의 공간에서 오대산 월정사 플랫폼과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No.1' 사찰음식 셰프는 누구? 수원 봉녕사가 10월 28일 경내에서 개최한 제12차 사찰음식대향연서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사진 왼쪽 첫번째)을 비롯해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적연 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 스님, 봉녕사승가대학장 의천 스님 등 심사위원 스님들이 출품작을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만에 열린 사찰음식대향연에서는 '치유와 힐링' 을 주제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면역강화 사찰음식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대중에게 선보였다. 〈현장 기사 5면〉
수원=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내년도 예산안 승인…종법 제 · 개정안만 15건

조계종 제222회 중앙종회, 어떤 안건 다루나

11월 2일 개회…15일 회기
'재적본사전적특별법' 주목
미등록법인 도제 권리 등
'법인법' 개정안에도 관심
대종사 자격 완화 '법계법'
호계 · 법규위원 인사안도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가 11월 2일 15일간의 회기로 개원한다. 이번 정기회에 발의된 종법 제 · 개정안은 15건이며, 초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선출의 건 등 인사안건도 7건이 예정돼 주목된다.

조계종 제222회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는 10월 28일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이번회기 의안들을 검토했다.

접수 의안은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법계법' , '승려법' , '계단법' , '호계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진 스님이 대표발의한 '제적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무원법' 개정안과 도심 스님이 대표발의한 '승려법' 개정안, 법원 스님이 대표발의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법)' 외 6건, 총무원장 발의안인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총 15건이다.

이 중 법원 스님이 대표발의한 7건의 의안은 모두 미등록법인의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법' 에 따른 연계법안으로, 미등록법인 및 사설사암의 권리인, 임직원, 관리인과 도제까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도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법인법' 의 경우 이번 회기에서는 총무원장 발의로, 종단에 등록된 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총무원이 조사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총무원장은 종단등록법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종단 위상을 실추시키는 경우 조사를 시행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1개월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종단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의 신설규정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법인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완화와 등록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한회기에 접수 · 논의됨에 따라 입법 방향성이 서로 상충하거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이밖에 출가 시 등록한 재적본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재적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과 대종사 · 명사 품서 자격을 완화한 '법계법' , 승탑을 사미 · 사미니계 수계일로 기산토록 변경하는 '승려법'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사안건은 초심호계위원 법성 스님과 법규위원 도호 스님의 임기가 11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성곡 스님이 11월 22일, 소청심사위원 보경 스님이 11월 12일 임기 만료됨에 따라 후임위원 선출의 건이 접수됐다.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과 호법부장 서리 현민 스님의 호법부장 임명동의의 건도 다룬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중앙종무기관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한다. 총무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38억여원이 감소한 855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40% 증액된 279억여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6.79% 감소한 576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선사찰의 고충을 분담하기 위한 조치로, 2022년 예산안은 동결 수준에서 증액부담을 낮추는 수준에서 편성했다"며 "특히 일반회계 예산안 책정에 있어서 내년도 종정추대식과 통합종단 60주년 기념식, 총무원장 선거로 인한 퇴임 · 취임식 등 반드시 필요한 행사계획안을 반영하면서도 최대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222회 정기회에서 심의 ·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삼보사찰 방장스님의
감로법문에 큰 힘을 얻었으며,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삼보사찰 순례, 부처님 성지 참배하며 가르침 새기는 수승한 공부"
불지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 법어

"걸음걸음에 정성 다하고 깨어있다면 천리순례는 최고 수행"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 법어

"삼보사찰 천리순례, 힘든 시기 국민 불자들에게 희망 용기 줄 것"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대종사 법어




상월결사 정신, 佛緣맺기로 발현

수미산원정대 · 상월청년회 일제히 2기 입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미산원정대 28일 118명 입학
1기 47명 졸업, 동문회도 출범
자승 스님 법문 "바른 행" 당부

상월청년회, 23일 33명 입학
1·2기 70여 명으로 조직 확대
'적극적 찾아가는 불교' 다짐



'수미산원정대'는 10월 28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1기 졸업식 및 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불교중흥을 위한 상월결사 정신이 불연맺기로 전방위 확산되고 있다.

불교인연맺기의 핵심 주체인 '수미산원정대'(회주 자승)는 10월 28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1기 졸업식 및 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먼저 1기 졸업식을 겸한 수계식으로 시작됐다. 불교와 인연맺기를 주제로 한 수미산원정대는 1기로 총 73명이 입학했고, 47명이 졸업했다. 수미산원정대는 교육 이수 후 졸업시 비불자를 차기 대원으로 안내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1기생 73명 중 가톨릭 8명, 개신교 7명, 무교 34명으로 전체인원 중 비불자가 60% 이상이다.

이날 수미산원정대 회주 자승 스님은 증명법사로 직접나서 "계는 드나드는 출입문과 같아 개차법을 잘써야 한다. 부처님 계법은 남에게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르침"이라며 "불자의 바른 행을 위해 오랜세월 동안 지은 잘못을 삼보전에 모두 참회해야 한다"고 수계법문했다.

1기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증서와 함께 회주 자승 스님이 졸업생들의 목에 특별 제작된 만의가사를 걸어주며 불자로서의 활동을 당부했다.

1기 졸업생을 대표해 육현표 수미산원정대 동문회장은 "포교와 성찰, 실천이라는 원력을 세웠다. 앞으로 수미산원정대 1기와 2기가 힘을 합쳐 활동하자"고 말했다.

원정대 단장을 맡고 있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많은 이들을 위한 부처님 세상 만들기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수계사로 연비의식을 집전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비불자들이 불교와 새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차별없는 법석이 바로 수미산원정대"라며 "종단의 큰 기쁨이자 전법포교의 새로운 활력인 이들을 본받아 새 신도 안내 강화와 수계식 활용방안을 고안하겠다"고 전했다.

수계식 후 행사는 2기 입학식으로 이어졌다. 2기 수미산원정대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이광순 바둑연맹 회장, 조시영 대창 회장,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등 118명의 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상월정신을 청년들에게 전하는 '상월청년회'도 10월 23일 2기 입학을 통해 조직 규모를 70여 명으로 확대했다.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 상월결사 총도감)가 10월 23일 수국사서 진행한 상월청년회 1기 수료식 및 2기 입재식에서는 1기 28명이 수료를, 2기 33명이 새로 입학했다.

상월청년회는 동국대 재학 중인 20대 대학생들을 비롯해 2030세대의 다양한 직군 청년들로 구성된 불자조직이다. 찾아가는 불교의 상월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문화교육과 봉사 등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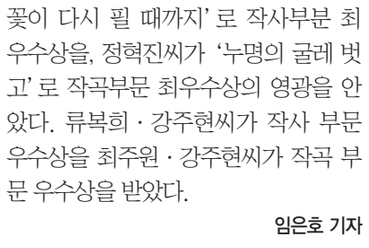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머리로 불교를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 실천행이 필요하다. 실천하는 청년회로 거듭나도록 적극 돕겠다"며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이 관심 갖고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곁에 있음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제준 상월청년회장(前동국대 총학생회장)은 "상월결사는 불교변화의 중심이다. 그런 의미를 잘 되살려 2기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10.27법난 41주년 추념법회 봉행

조계종 총무원, 10월 27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진상규명 · 명예회복 요구
승려문예 · 추념곡 시상도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0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0.27법난 제41주년 추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추념식에는 명예원로의원이자 10.27법난피해자모임대표 명선 대종사와 원로의원 원행 대종사, 총무원장 원행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등 교역직 스님, 법난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추념법회는 10.27법난 및 국가권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법난 당시 강제 연행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 1770여명, 특히 고문과 폭행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은 스님들을 추념하며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 알려진 사실만 피해의 전부가 아니"라며 "불교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와 종교적 청정성 훼손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무형의 피해"라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특히 10.27법난 피해 생존자는 물론 불교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실규명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장 금곡 스님도 "10.27법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효가 없다"며 "10.27법난 피해자와 조계종단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실규명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추념법회에서는 10.27법난 41주년 추념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승려문예 공모전과 추념곡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혜해 스님이 '가사를 정대하며'로 시부문 대상을, 법념 스님이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로 산문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서현 스님과 종명 스님이 시 부문 우수상을, 지몽 스님과 영우 스님이 산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추념곡 공모전에는 임대열씨가 '연꽃이 다시 필 때까지'로 작사부분 최우수상을, 정혁진씨가 '누명의 굴레 벗고'로 작곡부문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류복희 · 강주현씨가 작사 부문 우수상을 최주원 · 강주현씨가 작곡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임은호 기자

"코로나 후 불교문화 체험 콘텐츠 상품화 시급"

문화창달위, 10월 26일 불교문화비전 토론회

이재수 교수, 주제 발제서
IT기술 융합 · 설계 강조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불교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불교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문화창달위원회(위원장 원명)는 10월 26일 서울 전법회관 3층에서 '불교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토론회 및 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 이번 좌담회에는 이영숙 동국대 영상콘텐츠연구원 교수,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 전병길 동국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 등 종단 내 불교문화유관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맞은 불교문화 콘텐츠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 눈길을 끌었다.

이재수 교수는 '불교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불교계의 문화정책 방향과 콘텐츠 개발 및 불교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이 교수는 4~9월 6개월간 불교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3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과제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트렌드 분석 △불교문화 콘텐츠 현황과 활용정책 △불교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책 방향 제시 등이다.

이 교수는 이날 불교문화 체험을 상품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이용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비대면 연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주목했다. 메타버스 활용은 최근 불교계 핫 이슈 중 하나로, 서산 보원사, 오대산 월정사 등도 최근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선보여 눈길을 끈바 있다.

이 교수는 "실감콘텐츠 지향으로 불교문화콘텐츠의 미래 기반을 선도해야 한다"며 "현실세계를 초월한 새로운 미래공간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이제 콘텐츠 분야를 넘어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만큼 불교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도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뿐 아니라 불교 대표 브랜드인 템플스테이의 활용도 강조했다.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사업으로서 각광 받고 있음에 주목한 이 교수는 "코로나19 종식 후 국내여행에서 희망하는 활동은 자연 및 풍광 감상과 휴식이며 이는 불교문화관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광트렌드 변화로 비대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전망되고 스마트관광사업 등 디지털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서 관광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호국 홍제사, 장병포교 산실 터전 마련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홍제사 교육관' 개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일)는 10월 24일 충남 계룡시 소재 육 · 해 · 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교육관 개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육 · 해 · 공군 본부 군승,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인 해군총장 부석종 제독과 계룡대 호국사 통합신도회장 유재문 장군, 예비역불자회장 박대섭 예비역 장군 불자, 그리고 지역 현역 군불자 및 일반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관 주차장 인근 야외에서 봉행된 개관법회는 신중기도를 시작으로 불사 경과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호국 홍제사는 2016년 1월 5일 국방부 중기 계획에 반영돼 2018년 1월 18일 신축부지 선정, 총 50억 예산 규모로 불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개관한 교육관은 홍제사 템플스테이관 등으로 다목적 활용되며 25객실에 140명 수용가능하다. 코로나 상황에 맞게 소법당에서 각 객실로 실시간 법회 영상이 송출 가능하도록 했다.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이 교육관은 앞으로 완공될 대웅보전 법당과 함께 계룡대 호국홍제사의 핵심 시설"이라며 "본 불사인 대웅보전 건립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저희 금륜사는 1991년 회사설립 이후 부처님께 최고의 공양을 올린다는 서원으로 인등을 비롯한 불사용품 제작에 장인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30년의 축적된 기술의 노하우와 최적화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끊임없는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고집스럽게 원목과 최상의 자재를 사용합니다.
- 금륜사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로 고객지향의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010-3781-2460 / 031-534-0048 / 팩스 031-532-2468


불단 · 닫집 · 인등


영단


원불전

“본말사·신행단체도 환경조직 구성을”

불교사회연구소 10월 28일 세미나
유정길, 교구별 환경위 설립 제안
“탈성장 전환사회 나가야” 주장도
원철 스님 “환경보살로 실천행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는 환경위원회와 함께 10월 28일 ‘기후변화와 불교실천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기후위기 시대에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환경위원회(위원장 무관)와 함께 10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후변화와 불교실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협동조합 이사장이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대응 현황’을,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이 ‘국제시민사회 및 한국사회 대응 현황’을,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이 ‘한국사회 종교계의 대응 현황’을,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기후위기 극복과 전환사회를 위한 불교의 사유와 전통’을,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불교의 실천과 전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불교실천 과제를 제안하며 “25교구 본사 중 교구본사별로 7개 정도의 기후환경실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행단체들도 환경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한 유 소장은 “본말사 주지와 사무장,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실시해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실천적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10년간의 활동을 위해 앞으로 1년간의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차원의 기후행동 특별지원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유 소장은 “‘기후환경실천위원회’ 등과 함께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지원팀은 전문위원들과 이를 전담할 실무팀으로 구성해 홍보물을 만들고 정기적인 캠페인을 조직, 교직지원과 조직지원, 지역별로 환경위원회 회의와 워크숍을 조직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한국사회 종교계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기후위기는 사람들의 이기심에 기초해 욕망을 부추기고 극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생겨난 문제”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돼 있다. 인간들뿐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과도 서로 돕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 널리 확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제도화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이제는 ‘탈성장 전환사회’로 나아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면 IMF 시기의 2배에 달하는 감축이 매년 전년 대비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조사가 있다.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환은 빨리, 생활은 더욱 활력 있게 짜내야 할 시점”이라며 “기후행동을 통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도록 압박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탈성장에 최적화된 수준으로 바꿔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도 “경제성장 또는 녹색성장을 목표로 하면 기후위기는 막을 수 없다”며 “한국 시민사회의 기후운동은 사회적 가치를 돈이나 경제가 아닌 돌봄과 나눔의 가치, 생태적 가치로 전환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시민 대다수가 경제성장 보다 돌봄, 나눔, 생태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정치, 경제의 다양한 행위자들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서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지구와 우리의 생존이 결코 둘이 아님을 알고 최선을 다해 환경보살로 살아가야 한다”며 “원력을 새로이 하고 다방면에서 실천행을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김광삼 본지 초대 사장, 불교언론인상 수상

제29회 불교언론문화상 발표… 11월 24일 시상식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초대 사장<사진>이 제29회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10월 28일 ‘제29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올해 대상 수상작으로는 KBS1TV에서 방영한 ‘다큐On-마음을 잇다, 템플스테이’가 이름을 올렸다.

불교 언론계에서 남다른 공로로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주는 불교언론인상에는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초대 사장이 선정됐다.

1967년 매일경제신문 정치경제부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한 김 초대 사장은 1994년 창간 발행인으로서 현대불교신문사를 창간했다. 이후 12년 간 사장으로 재직하며 불교계 최초의 포털사이트인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개설해 불교의 사이버 포교를 이끌었다.

1996년에는 전국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사유상을 보급했으며, 1998년에는 사회의 그늘진 교도소와 군법당 등에 신문 보내기 법보시 운동도 적극 펼쳤다. 1999년 ‘한국불교 이것만은 고칩시다’란 캠페인을 기사와 함께 펼쳐 한국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구산선문을 찾아서’란 불자들을 위한 테마기행을 기획해 당시 문광부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전국순회 ‘간화선 대법회’를 펼쳤으며, 2002년에는 불교계 첫 2섹션 지면을 선보여 불교계 신문 언론을 한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방송 부문 TV최우수상에는 BBS불교방송의 ‘스님의 펫밀리’, 라디오최우수상에는 BBS라디오 ‘이효주의 싱싱라디오’, 우수상에는 G1(강원민영방송)의 ‘모두를 홀린 얼굴’이 각각 선정됐다.

신문 부문 최우수상에는 불교신문의 ‘선암사, 잃어버린 60년…불법(佛法)에 대처 없다’가 우수상에는 법보신문의 ‘국·시립합창단 교묘한 종교편향 고발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뽑혔다.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에는 불교신문TV의 ‘불교왕’, 우수상에는 BBS 닥잠의 ‘힐링 ASMR <리얼사운드맛집, 닥잠 Dr.ZAM>’가 선정됐다.

제29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1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며, 조계종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 문화 확산 축구로 희망 슛 쏘다

FC생명나눔, 친선 축구대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조계종 대종사)는 10월 23일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에코랜드 축구장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의 슛’을 슬로건으로 김흥국 홍보대사팀과 FC생명나눔이 친선 축구경기를 펼쳤다.

일면 스님은 “김흥국 홍보대사 축구팀과 FC생명나눔 축구팀의 경기를 통해 생명나눔에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함양해 나가는 길에 모두가 함께 나가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국가 미얀마 코로나 극복 기원합니다”

국제불교연합, 미얀마대사관에 마스크 10만장 전달

1월 이어 두 번째 마스크 나눔
민주화 갈등 이중고에 힘 모아


국제불교연합은 10월 27일 서울 미얀마 대사관에서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민주화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얀마를 돕기 위해 불자들이 나섰다.

국제불교연합(이사장 재원)은 10월 27일 서울 미얀마대사관에서 미얀마 고아원과 초등학교, 불교대학 등에 K방역세트로 어린이 및 성인용 마스크 총 10만장을 전달했다. 이번 K-방역세트는 불자기업인 에스제이파워(회장 신항철)를 비롯해 대성울트라소닉, THL네트웍스, 참이누리 등이 지원한 것으로 에스제이파워에서 생산한 미화 5만 달러, 한화 5000만원 상당의 싱그라미 마스크다. 이밖에 하남 청운사, 안성 연등사, 제주 대원사 등도 참여했다.

전달식에는 국제불교연합 이사장 재원 스님과 제주 선운정사 회주 현오 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을 비롯해 신항철 에스제이파워 회장, 홍을선 국제불교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딴진 미얀마 대사 등 관계자들이 국제불교연합의 기부물품을 받았다.

재원 스님은 “20여 년 전부터 바간 불탑 복구 등 미얀마를 도와왔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여러 불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미얀마 상황이 안정화되어 미얀마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딴진 주한 미얀마 대사는 “미얀마 불자들을 대표해 감사를 전한다. 한국불교계와 우호관계를 더욱 다지고자 한다”며 “미얀마는 수개월 전보다 많이 안정화됐다. 백신도 70%가까이 접종하고 코로나 극복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있다. 미얀마에서 사업하시는 한국분들도 현재 교류를 넓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오 스님은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물품은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제불교연합은 미얀마 방역물품 지원에 이어 2022년 1월까지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등 불교국가 돕기에 나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세계 불교영화, 지역서도 선보인다

2021 세계일화 OIBFF 지역상영회 개최

2021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OIBFF)가 11월 13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역상영회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이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대학원장 이원덕)과 각 지역 교구신도회에서 주관하는 지역상영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6개 주요 도시(△강릉△대전△대구△부산△광주△제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네 편의 불교영화를 선보인다.

지역상영회에서 만나게 될 영화는 지난 8월 영화제에서 우수작으로 평가 받은 작품들로 개막작 ‘컵’의 감독인 켄체 노부의 작품 ‘나그네와 마술사’와 부탄의 한 초임교사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교실안의 야크’, 그리고 시청각적인 요소로 명상의 세계를 보이며 호평 받은 미국 영화 ‘삼사라’, 마지막으로 ‘안녕, 나의 소녀시절이여’ 이라는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다. 해당 영화는 모두 무료 관람이며, 오는 11월1일부터 인터넷 예매 사이트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www.oibff.com)

2021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OIBFF)는 지난 8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5개국 62편의 우수한 불교영화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본 영화제의 공동조직위원장인 주윤식 이사장은 “지난 여름, 불교영화를 통해 많은 이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의 감동과 분위기를 지역의 불자들과도 함께하고 싶어 지역상영회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또, 지역상영회를 통해 권역별 교구를 중심으로 지역불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템플스테이 인스타그램 이벤트

#두근두근템플스테이 #우리지역_힐링드림

접수 방법
1.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가보고 싶은 사찰 찾기
2. 인근 관광지를 연계해 여행 코스 계획 후 카드뉴스 제작 6장 이상(표지 – 여행 코스 – 관광지 소개 3장 – 마무리)
3. 참가자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업로드(계정은 공개 상태로 설정)
   필수 해시태그: #두근두근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힐링템플드림 @templestay 계정 태그 필수
4. 주소창에서 **템플스테이.COM** 접속 후 **참가신청서 등록**하면 참여 완료

진행 일정
접수 기간: 2021년 8월 2일(월) ~ 23일(월) AM 11:00
결과 발표: 2021년 9월 중 개별 안내(시상식 진행 예정)

유의사항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미지 활용해 콘텐츠 제작.
수상 이력이 있는 작품이거나 표절 작품은 수상할 수 없음.

시상 내용

1등	1명	상금 50만 원 + 템플스테이 체험권 2매 + 상품
2등	2명	상금 30만 원 + 템플스테이 체험권 2매 + 상품
3등	3명	상금 10만 원 + 템플스테이 체험권 2매 + 상품
인기상	4명	모바일 기프티콘 + 템플스테이 체험권 2매 + 상품
입 선	30명	모바일 기프티콘 + 본디나 기념품

* 본디나 기념품은 수상자 전원에게 지급합니다.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 상품: 소정의 이벤트 기념품
* 모바일 기프티콘: 1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

문의처
TEL: 070-4366-7013
E-MAIL: jin@eggpr.co.kr

참가신청서 등록 바로가기

운명 바꾸는 기도…'성취'가 불교귀의 첫 걸음

안심정사 창건 30주년

1. 한국불교 새 바람
2. **행복을 일구는 기도**
3. 신심의 회향과 나눔
4. 운명을 바꾼 불자들
5. 법안 스님의 인터뷰


안심정사가 봉행하는 특별방생법회에는 전국 6개 도량에서 기도정진하는 불자들이 대거동참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자들이 종교적 귀의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 바로 '기도'다. 기도는 신행과 수행의 근본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삶 속에 녹여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기도의 범주는 대단히 넓다. 사전적 의미만 살펴봐도 그렇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 또는 의식으로서의 기도(祈禱), 어떤 일을 이루려고 꾀함. 또는 그런 계획이나 행동으로서의 기도(企圖),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꾀하는 기도(冀圖) 등. 범주는 넓지만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은 일맥상통이다. 한국불교에서의 절, 염불, 독경, 사경 등 대표적인 수행법이 모두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유다.

한국불교에서 '기도'는 기복불교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 저변에는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 또는 의식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원력으로서의 기도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성취'로 귀결된다.

기도도량 안심정사를 창건하고 일궈온 회주 법안 스님이 '기복불교'의 근간이 기도, 그리고 성취에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걱정 말고 기도하라"는 안심정사의 캐치 프레이즈에 이 같은 확신이 녹아있다. "성취가 없는 기도는 기복불교가 아니다"는 확신이다.

한국불교 현실 속에서 툭하고보면, 누구나 기도를 말하지만 기도를 통한 성취는 일부에 불과하다. 기도를 통한 영험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유 역시 귀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성취'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에, '기도발이 잘 받는 불교성지'에 유독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안심정사의 지난 30년은 기도와 성취의 연관성에 대한 증명이다. 한평생 '기도발'로 유명한 성지를 찾아다니며 기도에 매진한 신심 깊은 불자들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그토록 귀하디 귀한 영험담들이 유독 안심정사에선 흔한 경험담이기 때문이다. 안심정사 기도를 통해 즉각적인 성취를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만나는 수많은 불자들이 있다.

안심정사 기도가 특별한 이유, 빠른 성취와 그에 따른 영험담이 이례적으로 많은 이유를 회주 법안 스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시간과 노력, 전문가의 처방이 핵심입니다. 우선 기도는 부처님 가르침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과법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목적과 의미가 모호하면 쉽지 않아요. 인과를 깨달아 금강석 같은 믿음에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해 빠르게 성취하면 이를 통해 인과를 깨닫게 되고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나 10년을 기도해도 믿음이 없고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성취의 과정도 더뎌요.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기도가 있는데, 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의식수준과 전생의 습관,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신에게 필요한 기도를 제대로 해야 성취도 빠르기 때문이죠.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문가의 처방입니다. 딱 맞는 처방을 통해 기도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여기에 출가자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기도중인 불자들.


매주 평일 · 주말 구분없이 기도가 일상화됐다.


법당을 가득 메운 불자들.

기복불교 · 생활불교 향한 첫발
영험담 많은 이유는 '빠른 성취'
시간 · 노력 · 전문가 처방 핵심
간절함 더해질수록 행복감 'UP'

약왕보살로 칭해지는 부처님과 같이, 근기와 처한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제대로 된 기도처방에 시간과 노력, 즉 원력이 더해지면 빠른 성취가 따르고 이를 통해 인과법을 깨달아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는 지난 30년 세월 동안 스님이 직접 체험했고 스님을 통해 수많은 신도들이 체험한 바를 분석한 결과다.

"전생과 현생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나쁜 업을 소멸하고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해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에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기도를 하다보면 작은 성취가 생깁니다.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자신의 업에서 비롯됨을 믿고, 현재의 내가 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순간 인과를 체험하게 되고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점차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인과를 깨달아 믿음과 확신에 토대를 둔 기도는 나와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 동시에, 삶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자연스레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의식하는 계기, 즉 생활불교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이 불자들에게 최우선으로 처방하는 기도는 바로 '지장기도'다.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유독 〈지장경〉을 꼽는 이유는 업보를 소멸시키고 급한 소원을 원활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보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법안 스님은 "〈지장경〉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자,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해 설한 가르침이 담겨있다"며 "때문에 생사 모든 고민과 업보들이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최적의 경전"이라고 설명했다.

빠른 성취로 나아가다 보니 〈지장경〉을 수지독송하는 과정에서 하품이 나오고 눈물을 흘리거나 통곡하게 되는 순간이 잦다. 졸리고 잡념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불자들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지장기도를 시작한 후 더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다. 이때 스님의 답 역시 명확하다. "자동차가 속도를 낼수록 바람소리도 거친 것처럼 힘든 증상이 나타날수록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할 개인적인 사정과 속내를 털어놓는 것도 기도의 힘이다. 기도를 하면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지속적인 상담을 받는 과정은 곧 부처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과정 자체다. 이에 대해 법안 스님은 "부처님은 그야말로 상담전문가였다, 기도처방 역시 이미 부처님 재세시 전법의 일환으로 개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방안의 일환이었다"며 "상담과정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직시하고 이 모든 것이 인과임을 알게 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안심정사의 '기도'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재수불공'이 대표적이다. 불자이건 불자가 아니건 세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것, 바로 건강과 재물을 성취하는 기도다. 대단히 세속적으로 느껴지지만, 어디까지나 경전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다.

재가불자를 위한 가르침이 담긴 〈우바새계경〉이 대표적이다.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은 보리심을 어떻게 냅니까?' '선남자여, 두 가지를 위하여 보리심을 내니 첫째는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보살종성(菩薩種姓)이

재물 · 건강 위한 '재수불공'은
〈우바새계경〉 가르침에 토대
'지장기도'는 최우선적 처방전
기도에 법문 · 상담 · 교리 더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입니다.' "〈우바새계경〉'제2품_발보리심품'

부처님은 발보리심의 목적에 대해 가장 먼저 '수명과 재물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설했다. 부처님은 재가불자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에 대해 이미 수명과 재물이라는 명확한 답을 제시한 셈이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말하면 의구심이 들지요? 너무 세속적이고 좀 수준 낮은 불교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이미 많은 불자들이 제게 말했던 의구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법안 스님은 "신심 깊은 불자들이 쉽게 놓치는 지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예를 들어 불교를 모르는 이들, 혹은 삶이 고통스러워 종교에 의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불교는 공(空)이나 연기, 무아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면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삶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지금 처한 현실, 그리고 삶 속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고상하게 깨달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특별히 재가불자들을 위한 법을 따로 설하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즉 수명과 재물을 늘리기 위해 불교를 믿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법안 스님이 기도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은 '세속적이고 유치찬란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원이야말로 결국 성취됐을 때 재가불자들의 삶에 가장 큰 변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근간이지만 하근기로 치부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복불교와 생활불교죠. 세간에서 살아가는 재가불자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시에, 이상하게도 '하급(下級)으로 평가되지요. 그럼에도 가장 많은 공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것이 기복불교와 생활불교입니다. 기복은 성취가 없다면 이룰 수 없고, 부처님 가르침이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 생활불교 역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복불교, 생활불교야말로 중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다가서는 첫 발걸음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안심정사의 기도 프로그램이 '재수불공'에서 출발해 지장기도, 약사기도, 방생과 산신기도, 특별기도정진, 철야기도 등으로 나아가고, 동시에 불교교리교육, 경전강설 등으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남자여, 두 가지를 위해 보리심을 내니 첫째는 한량없는 세상에서 큰 고통과 번뇌를 받으며 이익을 얻지 못함을 관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비록 갠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부처님들도 우리의 모든 몸을 제도하여 해탈 시킬 수 없기에 자신이 스스로 제도해야 한다는 것을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모든 선한 업을 짓는 것이고, 둘째는 짓고 나서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바새계경〉의 또다른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재가불자들의 가장 큰 원력이 재물과 건강에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행을 구체적으로 설한 셈이다. 선업을 짓고 이를 잘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궁극적인 지향점은 선업으로서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법안 스님은 "부처님은 오직 '스스로가 믿고 실천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며 "이는 재가불자 역시 스스로 주인됨을 일깨우는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안심정사는 올해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반려동물 · 실험으로 희생 당한 동물들을 위한 특별천도법회, 인연을 맺는 천생연분 찾기 기도 등,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가운데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사찰에 신도들이 안온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신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법안 스님의 신념에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이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고 궁극적으로 중생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스님은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천도법회와 천생연분 찾기 기도 모두 첫 시도인만큼 홍보를 크게 하지 않은데 반해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며 "신도들의 요청이 많아 내년부터는 상 · 하반기 2회 정도로 정례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심정사의 '특별한 기도'

원력 · 간절함 쌓여 행복으로 귀결


논산 본찰 전경.



부산 안심정사에서 기도중인 법안 스님.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에 따르면 기도의 기본은 간절함이다. 무엇보다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바쁜 현대사회에서 간절하고 꾸준한 기도는 강한 의지와 신심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안심정사는 보다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 '기도소원표'와 '기도체크표'를 별도로 제작했다. 또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기도를 하고자 발심한 불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안심정사의 '기도소원표'는 다른 사찰에서 찾기 힘든 특별한 기도비법으로 주목할 만 하다. 열 가지 소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서 막연하게 마음 속을 떠다니는 발원을 명확한 성취 대상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기도의 목표가 분명하면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이 있는 기도는 간절함과 지속성으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기도소원표'에 명시한 10대 소원은 부처님께 발원하는 내용인 동시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드러내는 인생 설계도이기도 하다. 이에 10대 소원을 기도와 함께 매일 낭독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지탱하는 힘이자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법안 스님은 또 기도가 익숙치 않은 초심자와 보다 효과적인 기도법을 찾는 불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최적의 시간과 장소, 방법도 분명하게 제시한다.

스님에 따르면 시간은 인시(새벽 3시 30분~5시 30분), 방향은 생명을 뜻하는 동쪽에서 북쪽으로 30° 가량 틀어진 쪽을 보는 것이 좋다. 여법한 장소에 〈지장경〉을 올려놓고 3배를 한 뒤, 일정한 장소에 공양금을 올린다. 부처님께 올린 이 기도금은 회향날까지 매일 모아 안심정사 혹은 재적사찰에 공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본격적인 기도는 10대 소원기도문을 소리 내어 세 번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소원문을 읽은 뒤 지장경을 1독하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지장정근 108번, 또는 1080번 행한다. 1독이 어려울 경우, 매일 1품씩 이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기도의 마무리 역시 10대 소원문 삼독과 삼배다. 기도기간은 21일이나 100일이 좋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도를 하지 못한 경우 빠진 날만큼 회향일을 미루고 추가로 기도하면 된다.


논산 본찰에 봉안된 약사여래불.


논산 본찰에 6기 석불.

안심정사 전국 도량

논산 안심정사(본찰)
HP : 010-7422-4557 T : 041-742-4557
계좌번호 : 농협 429-01-046837

서울 안심정사
HP : 010-6640-4557 T : 02-577-4557
계좌번호 : 농협 317-0010-9502-51

부산 안심정사
HP : 010-9421-4557 T : 051-704-4557
계좌번호 : 우리 1005-501-906762

대구 안심정사
HP : 010-5241-4557 T : 053-625-4557
계좌번호 : 농협 301-0217-9108-21

창원 안심정사
HP : 010-8611-4557 T : 055-547-4557
계좌번호 : 농협 351-1060-4346-63

“사찰음식 치유에너지, 국민에 전합니다”



수원 봉녕사가 10월 28일 개막한 제12차 사찰음식대향연에서 참석 내외빈들이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비빔밥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 봉녕사, 10월 28~30일 제12차 사찰음식대향연 봉행

코로나에 ‘치유와 힐링’ 주제
28일 평가회 및 헌다례 봉행
30일까지 강연 및 경연 진행
코로나19 방역지침 엄정 준수
온라인 비대면 전과정 전송도

수원=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로 지친 대중들에게 사찰음식이 가진 치유의 힘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매년 사찰음식대향연을 펼쳐온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는 10월 28~30일 제12차 사찰음식대향연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봉행했다.

‘위드 코로나’ 를 앞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강한 식단인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여러 특강을 통해 수행뿐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대회를 열지 못했던 봉녕사는 올해는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모든 행사를 녹화 · 편집해 영상물로 선보이고 주요 행사는 유튜브 중계로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게 배려했다.

10월 28일 봉녕사 우화궁서 진행된 사찰음식 전시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양한 면역강화 사찰음식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평가회에는 주지 진상 스님을 비롯해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적연 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 스님, 봉녕사승가대학장 의천 스님 등이 심사위원으로 나서 출품된 사찰음식을 심사했다.

사찰음식 출품은 크게 2부문으로 봉녕사가 운영하는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 의 수강생들이 출품한 작품과 봉녕사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직접 만든 사찰음식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봉녕사 묘엄 스님의 생전 소반 재현과 선재 스님 등 사찰음식명장 음식도 시범 출품됐다.

이날 출품작들을 심사한 주지 진상 스님은 “부처님께서 음식으로 양약을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불교가 전하고 있는 사찰음식으로 면역을 강화하고 치유와 힐링을 하고자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며 “변이 창궐 등이 우려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바른 먹거리를 알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상 스님은 이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그 근본을 보면 무분별한 욕망의 발현 결과다. 이러한 육식 중심의 음식문화, 과다 섭취와 낭비, 인스턴트 음식의 만연 등의 문제에 눈을 돌리면 자연스럽게 청정한 먹거리를 찾게 된다”며 “대향연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봉녕사에서 직접 사찰음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선재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을 한동안 못했음에도 재료 선정과 음식 조리 등에서 사찰 전통에 가까워지려는 모습이 보여 뿌듯했다. 모든 음식에는 담긴 고유의 정신이 있는데, 사찰음식이 지닌 정신을 알고 우리 사회가 필요하는 문화 형성에 한걸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평했다.

이날 사찰음식 전시 및 평가회에 이어 봉녕사 대적광전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비빔밥 만들기가 진행됐다. 참석 대중들은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재료들을 함께 섞으며 ‘위드 코로나’ 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치유의 힘을 전했다.

이와 함께 대적광전에서는 초의다맥 제6대 전수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의 지도 아래 부처님과 묘엄 스님 영전에 차를 공양 올리는 헌다례가 진행됐으며, 문화원 ‘금라’ 에서는 니르바나오케스트라의 연주회도 진행됐다.

한편, 봉녕사는 제12차 사찰음식대향연으로 10월 29일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 에서 사찰음식 실습 강연,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강의, 탁발순례, 사찰음식경연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10월 30일에는 사찰음식교육관 졸업식, 공만식 동방대학원대 교수 강의, 우담화합창단 공연 등이 이어졌다. 사찰음식대향연 기간 동안에는 불교꽃꽂이와 화엄변상도가 봉녕사 경내를 장엄해, 환희를 더했다.


심사위원 스님들이 승가대학 스님들이 만든 작품을 시식하며 심사하고 있다.


제12차 사찰음식대향연에 출품된 사찰음식들을 심사위원 스님들이 심사하고 있다.


봉녕사 차문화연구원 불교행다례명상반 회원들이 헌다례를 올리고 있다.



29일 유튜브로 지견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가 중계되는 모습.

봉녕사 ‘新 동력’ 사찰음식 대중전법

세주 묘엄 스님의 유지를 이어 비구니 승가교육과 계율 중심도량으로 자리매김한 수원 봉녕사는 최근 사찰음식을 대중에 전하는 전법포교 도량으로도 거듭나고 있다. 인근 용인 수지와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로 젊은 신도들이 늘어나며 법회와 불교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교육의 수요가 늘어난 데 맞춘 것이다.

봉녕사 사찰음식교육관인 ‘금비라’ 는 사찰음식을 통해 생활 속 청정 수행을 전하고 있다. 묘엄 스님은 생전 생활 전반을 차지하는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러한 유지를 이어 청정한 사찰음식을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3년 조계종 사찰음식특화사찰로 등록 이후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10개월 정규과정을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고, 수요일 전문가스님 단기과정, 목요일 필수기초반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사찰음식대향연은 2013년부터는 세계 불교음식으로 그 범위를 확대, 국내 최초 세계 사찰음식 대향연으로 진행돼 세계 10여개 국가의 사찰음식을 전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만원력결집불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

우리 전통 음식문화 알리는 뜻깊은 자리

울산불교종단聯, 제 10회 전통음식문화한마당

10월 22일 울산 해남사서 개최해
해남사, 소외이웃 위한 쌀 전달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산옹)가 10월 22일 울산 해남사 경내에서 '제10회 전통음식문화한마당' 을 봉행했다.

전통음식문화한마당은 사찰음식 및 한국 전통의 식(食)문화 그리고 선(禪)문화를 함께 보여주는 지역대표 축제이다. 축제에는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산옹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월봉사 보화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성불사 혜안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 △봉행사 △내빈소개 △축사△백미 전달식 △사홍서원 △커팅식 △전통음식 전시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산옹 스님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문화의 뿌리를 찾고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준비했다"며 "우리 사찰음식을 전통 사기그릇에 담아 보여주고 한국 전통문화의 오랜 아름다움과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전통의 뿌리를 찾아보고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은 "전통과 사찰문화의 맥을 잇겠다는 목표로 10년 동안 이어온 행사이다"며 "울산의 산과 들에서 나오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울산지역 대표 장인들의 작품으로 음식과 꽃을 담았다. 울산의 얼과 정신을 함께 담아낸 축제이다.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음식은 곧 사람의 정신과 생활을 대표한다. 사찰음식은 전통의 문화를 잇고 생명을 사랑하는 불교정신이 담겨있다"며 "오늘 이 축제는 생명의 가치를 담은 음식문화를 보여주는 뜻깊은 문화행사이다"고 말했다.

전통음식문화한마당에서는 전통사찰요리 50여 개가 선보였으며 참가자에게 사찰음식 도시락이 제공됐다. 아울러 명천 스님의 선(禪) 꽃꽂이 작품과 신용균, 왕방요 사기장, 신현웅 도예가 등 지역 대표 도예가의 도자기 화병을 감상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가 10월22일 울산해남사 경내서 '제10회 전통음식문화한마당' 을 봉행했다.

전통음식문화한마당에서 선보인 음식은 〈산가요록(山家要錄)〉과 〈주방문(酒方文)〉에 나오는 음식기록을 근거로 사찰채식요리에 대입해 새로운 음식 문화를 보여줬다. 〈산가요록〉은 1400년대 왕실 어의 전순의가 지었다고 전해지며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농서이자 조리서이다. 〈주방문〉은 1600년대 말 무명의 선비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 한글 요리서이다. 음식은 명천 스님과 법보향 요리연구가가 동참했다. 명천 스님은 산사 승원 음식과 불화, 불교 복식에 이르기까지 불교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매진하고 있으며 법보향 요리연구가는 30여 년 동안 사찰음식을 주제로 활동해왔다.

한편, 해남사는 이날 지역민을 위한 사랑의 백미 전달식을 진행했다. 백미는 박태환 중구청장에 전달됐으며, 10kg 200포 총 2000kg이다. 백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외 이웃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김해 동림선원, 범종 · 금고 봉안

10월 23일, 3층 대법당서



김해시 장유 동림선원(주지 신공)이 10월 23일 3층 대법당에서 '범종 · 금고 봉안 점안식' 을 개최했다.〈사진〉

법회에서 지안 스님은 "범종의 소리를 생명의 소리라고 한다. 범종은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고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는 소리이다"며 "범종과 금고 불사에 동참한 모든 대중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불사 공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승한 불제자로 성장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신공 스님은 "동림선원을 개원한 지 4년에 접어들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어려웠던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불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동참으로 범종과 금고를 봉안하게 되어 감사인사를 올린다"며 "예불 때마다 종과 금고를 울려 육도중생이 소리를 듣고 번뇌를 씻어 이고득락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림선원은 법회 후 학술연구지원 후원금 500만 원을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안 스님에게 전달하고 연구발전을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3회 통도사 영축문학상 시상식

10월 22일, 통도사 해장보각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0월 22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제3회 영축문학상 시상식' 을 봉행했다.〈사진〉

영축문학상은 전국의 문인들이 통도사를 주제로 시, 수필, 소설, 시조 등 작품을 기고하며, 올해는 147명의 작가가 동참해 총 277편의 작품이 모였다.

시상식에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과 정영자 영축문학회 회장, 김선아 (사)부산여성문학인협회 이사장, 김일권 양산시장 등이 동참했다.

이번 해는 수상자는 권혁모 - '산문(山門)이 그리운 날' (시조), 김향자 - '통도사 월영교를 건너며' (시), 문영길 - '통도사 대웅전에서' (시), 차정연 - '통도사 템플스테이' (수필)이다. 영축시낭송상은 이숙례 시인 받았다. 통도사는 영축문학상 수상자들에게 부상으로 상금 500만 원, 시낭송상은 200만 원을 각각 수여했다.

방장 성파 스님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문학인들의 작품에 담긴 정신이 바로 문화의 힘이고 정신문화를 잇는 힘이 된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아미타대불 개금불사 회향

개산 18주년 기념, 10월 24일 대적광전서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10월 24일 경내에서 아미타대불 개금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사진〉



개산18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행사에서 홍법사는 국내 최대 좌불로 알려진 아미타대불 개금불사 회향을 알리고 전법 의지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개금불사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증명했으며 법회에는 주지 심산 스님, 정오 스님, 양재생 홍법사 신도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백종헌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개금불사는 부처님의 법의를 마련해 입히는 것과 같다"며 "부처님은 금빛 가사를 공양 받아 조각내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가사를 조각내어 나누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공덕을 짓고 불제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18주년을 맞아 진행한 개금불사이며 이 불사로 말미암아 신행을 좀 더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금불사는 부처님께 새로운 옷을 입혀드린다는 의미이다. 새롭게 조성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법사는 2002년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첫 법회를 봉행했으며 2003년 홍법사 개원과 동시에 대웅전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삼존불을 봉안했다. 2010년 개산7주년을 맞아 아미타대불 점안식을 봉행하고 이번 해 아미타대불 개금불사를 진행했다.

아미타대불은 높이가 21m이고 좌대까지 포함하면 총 45m이다. 개금불사 기간은 총 21일이며 참여대중은 아미타경 108번 독송 및 금박붙이기, 아미타경 사경 등으로 수행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홍법사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잔디마당에서 '부산서화 108인 초대전' 을 진행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주불교회관 개관 28주년 초청법회

송광사 현묵 스님 초청 법문

(사)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은 10월 23일 진주불교회관 3층 대법당에서 개관 28주년 기념 초청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송광사 수련원장이자 전국선원 수좌회 대표를 역임한 현묵 스님 초청 특별법회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진주불교회관 지도법사 지현 스님, 무료급식 보현의집 지도법사 옥천사 청련암 원명스님, 홍수승 진주불교회관 이사장, 황재웅 가야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김동영 진주불교 거사림회 회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등이 동참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 및 연혁소개, 홍수승 이사장 인사말 등이 이어졌으며 아울러 경남포교사단에 나눔의 밥차 행사를 위한 포교성금을 전달했다.

현묵 스님은 〈금강경〉과 참선을 주제로 한 법문에서 "〈금강경〉은 조계종 소의경전으로 수행 지침서이다"며 "〈금강경〉의 핵심은 무주상보시, 육바라밀이다. 공덕의 행을 강조하는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해탈의 가르침이다"고 강조했다.

홍수승 이사장은 "진주불교회관이 문을 연 지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성년의 나이를 훨씬 넘은 나이이다"며 "가야불교대학 학장스님이신 보선 스님과 수행단체 지도법사님이 함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진주불교회관이 있을 수 있었다. 28주년을 맞아 감사인사를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단체들과 협력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진주불교회관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주불교회관은 1993년 3월 15일 개관했다. 이후 재가 불자 교육 및 포교를 위해 활동했으며 보현의집 무료급식, 카페 보리수 다문화가정 바리스타 교육, 불교합창제, 가야불교대학 비대면 수업 등 다양한 활동 및 수행을 통해 불자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명사, 어린이 위한 다도 명상

10월 23일, 경내 거북바위서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10월 23일 경내 거북바위 마당에서 유치원 원아와 함께하는 '다도 명상 프로그램' 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다도 명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차 한 잔과 자연에서 얻는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다. 다도 명상에는 주지 춘광 스님과 광명사 자모다도회, 광명사 유치원생 및 학부모가 동참했다. 주지 춘광 스님의 좌종 소리에 맞춰 원생들은 명상을 시작했고 이어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차를 준비해 원생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차를 마신 원생들은 어머니와 선생님에게 차를 직접 내려 공양 올렸다.

주지 춘광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광명사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동안 실내에서만 활동하고 학습을 했다. 그동안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 마련한 행사이다"며 "오늘 다도 명상은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도록 돕는 지혜의 장이 되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광증 있으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이웃돕기 위해 애장품 내놓은 스님들

빛고을나눔나무, 10월 26일 경매 후원금 모금행사

실내등 · 휘호 등 8점 출품돼
1100여 만원 경매 통해 모금
국내외 어린이 후원 등 사용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님들이 애장품 경매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마련에 나서 화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 부설기관인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는 10월 26일 광주 수자타 야외무대에서 '붓다의 선물'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스님들의 애장품 경매와 미얀마 어린이 · 청소년 구호현황을 확인했던 이날 행사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법륜사 주지 월인 스님, 신광사 주지 동현 스님,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중현 스님을 비롯해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100여 명의 후원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코로나19로 야외에서 진행된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인사말, 환영사, 축사, 빛고을나눔나무 사업영상 상영, 경매, 이야기 손님(효진 스님, 前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장), 축하공연, 결과보고 영상 등으로 이어졌다.

스님 애장품 경매는 전체 8점의 물품이 전문 진행자에 의해 진행됐다. 이날 애장품은 도성 스님(실내등), 도계 스님(글씨 2점), 법안 스님(물품 2점)을 비롯해 이규형 작가와 석인 스님 등이 내놓았으며, 경매를 통해 후원자에게 전달됐다.

이날 후원행사를 통해 모연된 기금 1100여 만원은 목적사업인 승보공양, 어린이 · 청소년 지원사업(국내외), 불교뱅크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경매라는 낯선 방식의 후원 행사 때문에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도 많은 걱정이 있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경매가 시작되면서 수십 번의 호가와 흥미를 더하는 진행, 이에 호응하는 구입자가 어울려 당초 계획을 넘어선 재미와 후원금을 같이 얻었다는 평가다.

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지난 2019년부터 지원하는 미얀마는 불교국가이지만 최근 쿠데타와 군부 독재의 양민 학살로 인해 다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게 됐다. 어른들도 이런 환경에서 힘들어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여건은 더욱 절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후원행사를 통해 지원하는 대형정화시설은 100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식수로 마시게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빛고을나눔나무는 10월 26일 스님의 애장품을 경매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붓다의 선물'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도계 스님〈사진 왼쪽〉의 소장품인 휘호를 낙찰받은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사진 오른쪽〉의 모습.

상임이사 중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빛고을나눔나무는 광주불교연합회 부설기관으로 지난 2014년 11월 창립을 해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사단법인 등록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공익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며 "여러 후원자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환영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불교종립 정광중, 다목적 로터스관 개관

1층 급식소 · 2층 강당 구성
전교생 공동체 행사 가능해

광주 유일 불교종립 학교인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정광중학교(교장 유재순)가 다목적 시설인 로터스관을 개관했다.

정광중학교는 10월 27일 교내 다목적 시설 로터스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해 편안한 면학분위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개관한 로터스관은 1층 급식소와 2층 다목적 강당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공간이다.

급식소는 전체 650㎡에 300여 석으로 학생 · 교직원 식사공간과 최신식 조리시설을 갖춘 공간이다. 2층 920㎡의 다목적강당은 전교생 공동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강당과 체육활동을 겸한 장소로 활용된다.

로터스관은 지난해 1월 교육부 특별보조금 25억 원과 광주시청, 광산구청 보조금을 포함해 29억 9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2021년 2월 본공사를 시작해 지난 8월에 완성해 이날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덕문 스님을 비롯해 법인 이사인 무공 스님(백양사 주지), 만당 스님(불갑사 주지), 석장 스님(문빈정사 주지), 중현 스님(증심사 주지)과 前 정광학원 이사장인 원일 스님(나주 미륵사 주지),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동철 前 국회의원 등 광산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유재순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로터스관은 미래의 꿈을 피우는 인재들의 학습터로 쾌적하고 깨끗한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이자 심신수련의 장소가 될 것이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정광중학교는 75년 전통을 자랑하는 중등교육의 요람으로써 불교정신에 입각한 인재양성에 정진하고 있다"면서 "로터스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한 인성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더욱 알찬 교육의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개관을 위해 헌신한 원일 스님, 김동철 前국회의원, 김익주 · 김학실 시의원에 대한 공로패 증정도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0월 27일 열린 정광중 로터스관 개관식에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법화경 백일기도 회향 및 가람재

경북불교대학, 10월 23일 봉행

대구 수성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은 10월 23일 3층 대법당에서 〈법화경〉 백일기도 3차 회향 및 가람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가람재는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장 돈관 스님을 법사로 선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이수자)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시련을 시작으로 대령 관욕과 상단헌공 봉송 순으로 장엄하게 진행됐다.

경북불교대학장 돈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도량안정, 대중화합,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결계도량에서 선근을 지어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과 기도로 인간 본연의 자세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참된 주인공이 되길 서원한다"고 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태고종은 10월 28일 순천 선암사에서 제46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산림을 통해 50명의 새로운 출가수행자가 탄생했다.

"인천의 사표가 되소서"

태고종, 선암사서 합동수계산림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은 10월 28일 순천 선암사(주지 시각)에서 제46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산림을 통해 50명의 새로운 출가 수행자가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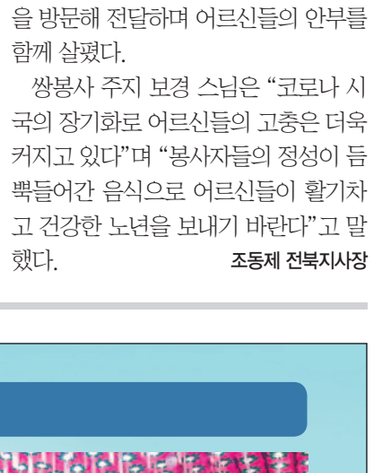
이날 수계를 받는 50명(사미 36명, 사미니 14명)은 지난 9월 28일 입소하여 31일간 기초습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예불 및 불교의식 습의와 종지 · 종풍과 종단사 교육 이수, 울력 등을 진행했다.

산림법회에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이 삼사로 참여하고, 법안 스님(교육원장), 재홍 스님(고시위원장), 혜주 스님(법규위원장), 상진 스님(동방대학장), 성오 스님(행정부원장), 법경 스님(포교원장), 도안 스님(충북종무원장)이 칠증사를 맡아 증명했다.

교수 우수자 시상에는 최우수상에 선명, 우수상에 법연, 모범상에 수산, 공로상에 해오, 법경 사미(니)가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봉사단 밑반찬 나눔 봉사

어르신 자택 직접 방문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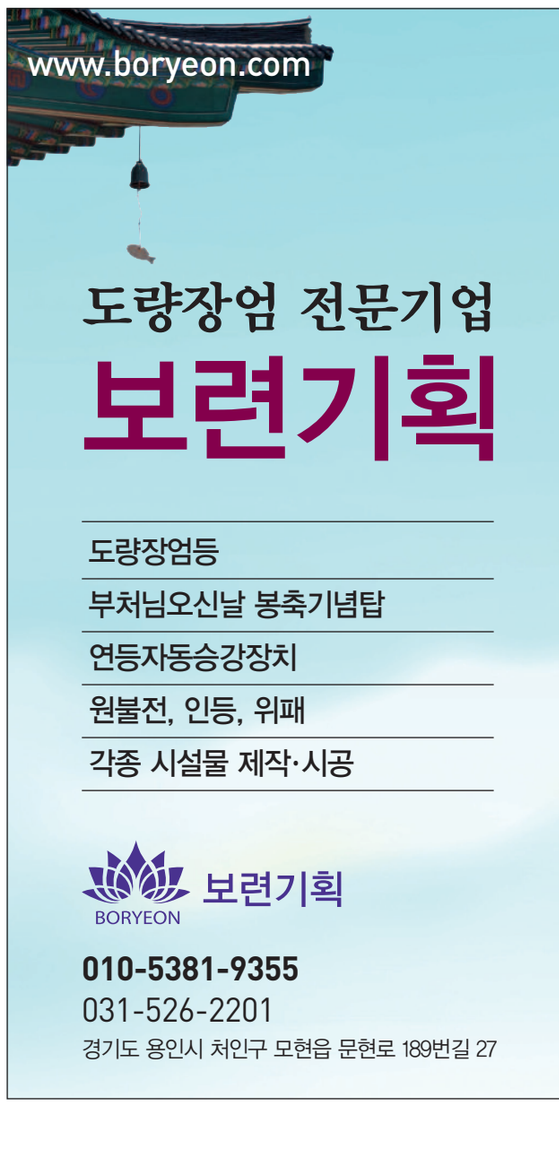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만복의 소리 봉사단'이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

쌍봉사 만복의 소리 봉사단은 10월 2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어르신 30가구에 총각무김치, 시래기된장국, 달걀곤약장조림의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과 협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세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식사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쌍봉사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된다. 완성된 밑반찬은 봉사자들이 직접 어르신 자택을 방문해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함께 살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봉사자들의 정성이 듬뿍들어간 음식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日천태종 역사, 한눈에 살피다

도쿄국립박물관, 11월 21일까지 천태종 불교유물 특별전 개최

박영빈 객원기자



전시회에 공개된 현존하는 사이쵸 대사상 중 가장 오래된 목조좌상(13세기).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일본불교의 성지인 히에이잔(比叡山)과 일본 천태종을 개창한 사이쵸(最澄) 대사의 원적 120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특별전이 개최됐다. 일본 천태종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장소를 바꿔가며 내년 5월까지 이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특별전을 지난 10월 20일 일본의 '야후재팬 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전시회의 중심이 되는 사이쵸 대사는 804년 입당유학을 통해 천태산에서 〈법화경〉을 근간으로 하는 천태종을 수학했다. 일반적으로 교학의 연찬과 지관(止觀)으로 알려진 선법으로 수행하는 중국 천태종의 전통에 사이쵸 대사는 밀교와 율종의 가르침을 혼합하여 천태종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사이쵸 대사의 유풍은 일본불교의 중흥기라 불린 가마쿠라(鎌倉)시대에 등장한 호넨, 신란, 니치렌, 도겐 등 타 종파들의 종조들이 히에이산에서 수행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박물관 측은 "사이쵸 대사의 사상과 그 사상의 도량인 히에이산은 일본불교가 발전한 산실"이라며 특별전을 개최하는 의의를 전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특별전 '사이쵸와 천태종의 모든 것'은 사이쵸대사 원적 1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이다. 사이쵸 대사의 입당유학과 천태종의 개창으로 시작하는 전시는 사이쵸 대사의 법통을 이은 제자들과 일본 각지로 전파된 천태종의 법등을 소개한다. 이어서 천태신앙의 심화와 함께 꽃핀 문화예술과 사상, 근대의 천태종의 흐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는 도쿄에서 시작해, 큐슈, 교토 국립박물관을 이어가며 각 한달 반가량씩 진행된다. 각 전시마다 전시품의 교체를 통해 전시되는 지역에서 꽃피웠던 천태불교의 미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전시장의 지역성을 살리고, 해당 지역에서 발전한 천태신앙에 중점을 둔 기획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실제 산문 밖을 나선 적 없었거나, 일반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던 성보들이 대거 전시된다.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의 전시회에선 200년 만에 외부에서 공개된 '지에대사 좌상(慈恵大師坐像)'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좌상은 2m 높이의 목조좌상으로 일본 최대의 초상조각품이자 조사상으로 알려져 있다. 원 봉안처인 도쿄의 진다이지(深大寺)측은 "해당 조사상은 50년에 한 번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종조인 사이쵸 대사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박물관에서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에대사는 민간에서 역병을 막아주는 원력이 있다고 전해져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더 많은 분이 친견에 용이한 박물관에서 지에 대사를 뵙고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진다이지 측은 전했다.

도쿄국립박물관에선 오는 11월 21일까지 전시가 이어지며, 2월부터 3월까진 큐슈국립박물관, 마지막 전시는 교토국립박물관에서 4월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교토 전시회에서는 사이쵸 대사가 천태산에서 유학했던 당시 천태6조인 담계 형연 대사에게 인가의 증거로 받은 7조 가사가 전시될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日시코쿠 순례, 세계문화유산 등재 본격화

순례처에 봉안된 불상들 조사 나서



네고로지에 봉안된 목조오대존상. 사진출처=NHK뉴스 캡처

1200년의 역사를 가진 시코쿠 88개소와 순례길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관에서 조사에 나섰다. 시코쿠섬에 소재한 4개현 중 66번부터 88번까지의 순례처가 산재한 카가와(香川)현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 가운데 순례처에 봉안된 불상에 대한 조사보고회를 진행했다. 10월 23일 일본의 'NHK 뉴스'는 현립 박물관이 개최한 조사보고회의 모습을 전했다.

다카마츠(高山)시에 소재한 제 82번 순례처인 네고로지(根香寺)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카가와현립 박물관과 현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보고회는 그간 진행됐던 조사내용과 함께 회장인 네고로지에 봉안된 '목조오대존상(木造五大尊像)'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설명이 중심으로 진행됐다.

네고로지에 봉안된 목조오대존상은 부동명왕을 본존으로 대위덕명왕, 금강야차명왕, 군다리명왕, 항삼세명왕의 5존으로, 1969년에 카가와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현립 박물관 측은 "그동안 불상은 14세기 중후반에 조성됐던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2004년, 보존수리를 위해 불상을 해체했을 때, 본존인 부동명왕상의 내부에서 1286년에 조성했다는 묵서명문이 발견됐다"며 그 역사적 가치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13세기에 조성된 등신대의 부동명왕상이 완벽한 상태로 현존하는 것은 드문 예일뿐더러, 카가와현 내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70번 순례처인 모토야마지(本山寺)의 본당과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이라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후 보고회의 참가자들은 수리를 마치고 원래의 자리에 봉안된 오대존상과 함께,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불상과 전적들을 견학하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카가와현 측은 "현재 현 차원에서 '시코쿠 88개소와 순례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순례처들과 남은 옛 순례길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3년 전부터 이러한 보고회를 지역 곳곳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회에 참가한 70대 남성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었지만 해설을 듣고선 새로운 마음으로 불상을 보게 됐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카가와현 문화진흥과의 마츠모토 카즈히코 과장보좌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는 지역주민의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가치를 알릴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샨티"…스티브 잡스 18세 친필편지 경매

절친에게 보낸 편지 경매, 선불교 관련 언급

애플 前 최고경영자(CEO) 故 스티브 잡스가 18살 때 쓴 선불교 관련 손글씨가 경매에 나와 이목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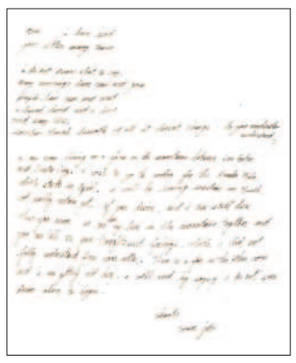
10월26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의 친필 편지가 내달 3일 영국의 경매 회사인 본햄스(Bonhams)를 통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당 편지는 스티브 잡스가 19세 생일 전날인 1974년 2월 23일 자신의 친구인 팀 브라운에게 보낸 답신으로, 선불교에 대한 잡스의 생각과 인도 여행에 대한 그의 열망이 담겨 있다. 팀 브라운은 스티브 잡스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잡스가 사망할 때까지도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스티브 잡스는 편지에서 "팀, 나는 네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많은 순간들이 오고 갔다. 사람들도 오고 간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사랑도 해봤고, 울기도 해봤다"며 "그러나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넌 알고 있니"라고 적었다.

또 그는 "나는 4월에 인도에서 열리는 쿰부 멜라(Kumbh Mela) 축제에 가고 싶다. 아직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3월 중에는 인도로 떠날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만 글을 마친다. 샨티"라고 마무리한다.

편지에서 언급된 쿰브 멜라는 인도에서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최대 종교 축제다. 아울러 '샨티'는 산스크리트어로 '몸과 마음의 평화'를 뜻한다.



본햄스는 "편지 작성 당시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 사과 농장에서 일하다 산타크루즈 산맥의 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며 "10대 시절 잡스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잡스가 애플을 창업하기 2년 전에 작성한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도 덧붙였다.

외신들은 해당 편지가 최소 20만 달러(한화 약 2억3500만원)에서 최고가 약 30만 달러(한화 약 3억5300만원)에 팔릴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한편, 스티브 잡스는 생전 불교신자였다. 자신의 결혼식도 불교식으로 올렸으며, 선불교 명상을 하는 모습이 자주 대중에 노출된 바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141년 만에 인도로 돌아온 진신사리

인도, 1898년 친교 의미로 스리랑카에 반출한 유물 환수



사진출처=자료사진

인도에서 발굴됐던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가 스리랑카로 옮겨간 뒤 141년 만에 다시 인도로 돌아왔다.

방글라데시 경제지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Financial Express)는 10월 26일(현지시간) "스리랑카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부처님 사리가 지난 10월 20일 스리랑카 콜롬보-인도 쿠시나가르 간 취항 비행에 오른 나말 라자팍샤 내각 장관 등 123명의 스리랑카 대표단에 의해 인도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 부처님 사리는 문화 당국으로부터 국빈 지위를 얻어 스리랑카항공 1A석을 통해 옮겨졌다. 유물은 상자에 담겨 흰 천으로 덮여 있었고, 유물 이동 규격에 따라 귀중품으로 분류, 이송됐다.

아울러 이번 환수 과정에는 와스카두와 유적사(Waskaduwa relics temple) 주지 와스카두와 마하나야케 테로도 동행했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앞서 인도는 친교의 의미로 해당 부처님 사리를 스리랑카에 전달했다.

해당 유물은 1898년 1월 1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지역의 한 사유지에서 발굴됐다. 이곳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이르러 숨을 거둔 곳으로 알려진 쿠시나가르에서 약 160km 떨어졌다.

해당 매체는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부처 유물을 전시하는 것은 국가 간 관계를 떠나 불교 문화권에서도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며 "앞서 카필라바스투(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 유물은 1978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스리랑카로 반출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타국에 반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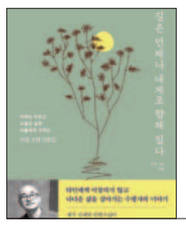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7~1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딱돌 해설서	중암 선해	금빛소리
2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	7	눈먼 보리와 도둑 고양이	동은 스님	불교신문사
3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8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것	동명 스님	조계종출판사
4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하늘호수	9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클로드 안젠 토머스	모네정원
5	프리스틴 마인드	올걘 초왕 린포체	운주사	10	도해 화엄경	용수보살	부다가야

책세상

"홀로선 길이 곧 자신의 고향"



길은 언제나 내게로 향해 있다
인현 지음
마음의 숲 펴냄
1만 3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마음 수행 산문집

'길 위의 스님' 인현 스님은 이 책에서 홀로 선 길이 곧 자신의 고향이라 선언한다. 길 위에서 고독을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모양새를 어림잡았기에 그러했을까. 또 한평생 그 길을 그리워하겠노라 다짐한다. 그곳이 아직 닿지 못한, 가장 가까운 열반의 세계였기에 그러했을까. 바람 잘 날 없는 세상에서 부처의 마음은 더 환해지는 듯하다.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 저자의 조용한 읊조림은, 사위를 가라앉히는 바람 소리가 되어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준다. 외로움을 벗 삼은 자신을 만나게 해준다. 그의 발걸음을 뒤따르는 것이 세상의 풍파를 피하는 좋은 방법임을 쉬이 눈치챌 수 있다.

자연의 무심함서 발견한 부드러운 위안

아픈 사람은 시대를 불문하고 늘 있었지만, 아픔이 깃드는 곳은 조금씩 다양해지는 듯하다. 발전하고 개인화된 사회의 모습을 닮는지, 아픔도 제각각 다른 형태로 발전하는 모양새다. 신체 질환은 의학의 발달로 치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른다. 대처법을 모르는 탓이다. 고통을 벗어나는 일이 쉬웠다면 그 누구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리라.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한 이들에게 이 책은 사계절이 머무르는 숲처럼 쉴 곳을 내어준다. 때로는 숲속에 부는 청량한 바람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문장 곳곳에서 새가 울고, 초록 그늘이 너울지고, 겨울 밭이 코를 곤다. 무심한 자연물을 단독자로서 고독히 맞이할 때의 순간처럼, 고통은 머리칼을 흩트리는 바람처럼 씻겨나간다. 자연에서의 발견이 당신의 마음을 한결 부드러이 만든다.

고독해서 맑고 아름다운 길

"길의 끝은 내가 멈춰선 곳입니다. 결국 나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을 모른다면 아무리 먼 여행을 한다 하여도,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산다 하여도 결국 제자리인 것입니다."

〈햇살 한 줌에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中에서

이 책의 화두는 '길'이다. 저자는 이를 다루며 '누구를 만나기 위해 나 있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그 길에서 성찰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고독을 만나기 위해 길을 걸으며 고독을 향해 내처 걷는 발걸음이 곧 자신의 숙명임을 이해한다. 삶이 곧 멈추지 않는 수행임을 일찍이,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리라.

내가 길을 향해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나에게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 그래서 바람의 길이 오고 구름의 길이 오고 사계절 꽃들의 길을 깨닫는 것. 그것을 저자는 '쉼'이라고 명명한다. 고독에서부터 참된 휴식과 새로운 성찰을 길어내는 저자의 문장은 책 속에 어렵지 않게 새겨져 있다.

"진정한 쉼은 길 위에 있습니다. 걸음을 옮겨 길 위에 설 때는 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걷기만 하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의식의 문이 열립니다. 그동안 분주히 떠돌던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길이 벗이 될 때쯤이면 고향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성찰이란 고독의 불빛입니다."

〈길은 자신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中에서

매 순간 누구나 부처였음을

제주도 선흘리의 깊고 한적한 들판에 '선래왓'이라는 아름다운 현대식 사찰이 있다. '선래(善來)'는 손님을 맞이하는 말로,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라는 뜻을 품는다. 불교에 처음 귀의한 사람에게 부처가 한 말이기도 하다. '왓'은 제주어로 '밭'을 의미하는데, '앙코르와트'의 '와트'처럼 사원을 뜻하는 다의어로 사용한다. 이름처럼 따뜻한 공간에서 길러낸 사유가 몸과 마음에 좋지 않을 수 없겠다.

아주 어렸을 적 출가한 인현 스님은 다양한 절에서 공부하고, 해외의 명상 센터에서 수행하며 걸망을 짊어지고 오랫동안 길을 걸었다. 제주에 정착한 뒤 20년간 한국 및 제주 불교사를 공부하고 정리하며, 오랫동안 세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수행해왔다. 고요한 평화를 닮은 말씀은 오랜 수행의 결과물로써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세간에서 접할 수 없는 호젓한 오솔길을 열어주고 있다.

"시린 겨울의 찬바람도 이처럼 따사로운 봄날이 되면 설렘의 바람이 되듯이 스스로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돌리면 이 세상 모두가 나의 은인이며, 따뜻하게 감싸주는 봄바람임을 알게 됩니다. 우수, 경칩이 이제 봄임을 알립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바로 봄임을 믿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를 떠나왔듯 오늘을 떠나려 합니다. 참회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길로……."

〈이제 자신이 봄임을…〉 中에서

짧은 경어체로 이어지는 스님의 잠언은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어 겸허하다. 자연들을 오래 응시하며 쓴 간결한 글들은 맑으며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 선한 울림 속에서 마침내 진정한 평안과 건강한 마음, 그리고 오늘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짧은 경어체로 이어지는 스님의 잠언
자신에 대한 성찰 담고 있어 겸허
자연들을 오래 응시하며 쓴 글들
맑으며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

▲저자 **인현 스님**은?

어린 시절 제주 어촌 김녕 백련사에서 출가했다. 합천 해인사의 강원과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경전을 공부했다. 이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동 쌍계사, 금정 범어사, 미얀마 마하시 명상 센터 등에서 수행했다. 인연이 닿아 해인사, 법주사 승가대학의 강의를 맡았다. 현재 제주 오름의 길목 선래왓 도량에서 정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해골 물서 원효 나오게 하고싶어"



소설 원효
이지현 지음
불광 펴냄/1만 5천원

1,400여 년 전 원효의 마음

간밤에 달게 마신 물이 알고 보니 해골에 고인 물이었음을 알고 깨달았다는, 이른바 '해골 물' 일화로 잘 알려진 원효 대사. 그런데 이 일화가 뜻하는 바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헌법학자인 이지현 작가는 원효의 〈판비량론〉을 탐독한 뒤 충격을 받았다. 이 책은 원효가 당대 유명한 고승 현장 법사의 논리를 비판하며, 인간의 심신을 치밀한 논증 방식으로 파헤친 것이다. 책을 읽은 뒤 원효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승가서 속세로, 지아비이자 자식을 낳은 평범한 거사로, 거지들 속으로 들어간 원효의 파계가 당연한 선택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법학자로서 바라본 원효는 만법의 이치, 즉 깨달음과 실천이 한 치 어긋남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다.

작가는 '해골 물 일화'에서 벗어나, 원효가 평생의 삶을 통해 전파하고자 한 가르침을 통사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전기 소설의 형식을 빌렸다. 원효의 저서와 논문, 설화 등 각종 문헌을 섭렵해 역사적 사실을 줄기로 삼되, 원효의 삶에서 공백으로 남은 부분은 당대 역사와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상상하여 채웠다. 삼장 법사와 손오공, 용왕과 용, 살아 있는 시체들, 요석과 의상 대사, 당 태종, 문무왕 등 실재와 허구를 넘나드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이 엮여, 마치 1,400여 년 전 서라벌 땅으로 되돌아간 듯 거대한 판타지로 펼쳐진다.

어쩌면 원효는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이 땅에 마음껏 펼치고 사라진 것인지 모른다. 1,4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각자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책은 원효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작은 주춧돌이자,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원효는 왜 거지들 속으로 들어갔을까?

일본 교토 고잔지(高山寺)에는 13세기에 그려진 원효의 가장 오래된 초상화가 남아 있다. 다듬지 않은 거친 수염과 마르고 검게 그을린 얼굴은 원효가 어떤 삶을 살다 갔는지 짐작케 한다. 2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학자로, 여러 종파로 나뉘어 대립하는 불교 사상을 통합한 사상가로, 만법의 이치를 깨친 수행자로, 저잣거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철저한 실천가로 살다간 원효. 그는 이론과 실천이 완벽히 들어맞는 성현이었다. 원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원효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 원효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 저 유명한 '해골 물의 일화'는 그의 사상적 핵심인 일심(一心)과 화쟁(和諍), 무애(無碍)의 뿌리이다. 한마디로 줄이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간밤에 달게 마신 물이 알고 보니 해골에 고인 물이었음을 알고 깨달았다는 일화에서 나왔다. 종종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라고 오독되는 '일체유심조'의 본래 뜻은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이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사물 자체에는 깨끗함과 더러움,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이 없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낼 뿐이다'라는 것, 각자의 마음이 현상계를 만들어내고 마음이 사라지면 이 현상계도 사라지는 것이다. 모든 분별이 떠난 그 자리, 공(空)의 자리를 깨치면 나와 남, 나고 죽음, 옳고 그름 등 분별로 인한 번뇌에서 벗어나 종국에는 그 번뇌조차 자유자재로, 바르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학자 출신 작가가 본 '원효'
"깨달음과 파계는 같은 자리"
마음 어떻게 쓸지 화두던져

이 근본 자리를 깨친 원효에게는 승과 속, 수행자와 범부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에게 중생은 구제와 교화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며 자유와 해탈로 함께 가고자 하는 스승이자 도반이었다. 이 맥락에서 원효는 파계는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거지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단지 원효의 파계와 요석과의 혼인 등 파격 행보만을 가리켜 비난한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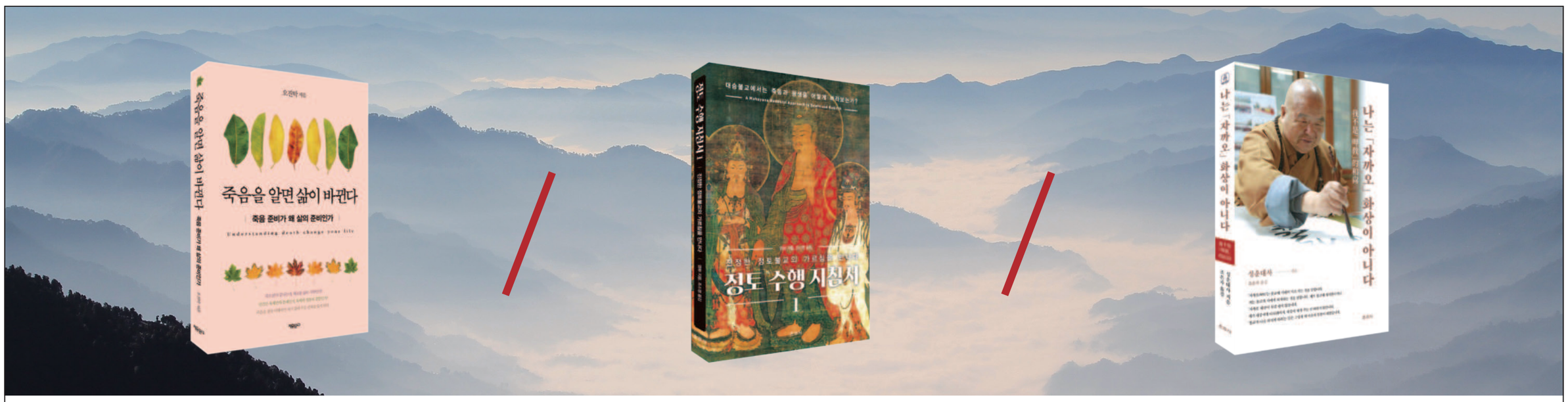
원효는 생의 모든 순간을 향상(向上)과 깨달음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삼았다. 원효가 떠난 지 1,400여 년이 지난 오늘, 원효를 읽는다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궁극의 깨달음의 자리를 알아내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다. 원효가 온 삶을 통해 보여준 바로 그 자리를 '쉽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간절한 바람으로 저자는 이 책을 써야만 했다.

난해한 한자어로 얽히고설킨 논리를 좇느라 생긴 두통과 함께 읽어낸 〈판비량론〉, 이어서 원효의 저술과 사료, 전기, 소설, 논문 등 온갖 자료를 섭렵하는 동안 작가는 매일 밤 꿈속에서 거지들과 함께 울고 웃는 원효, 저술에 매달리며 밤을 새우는 원효, 전쟁터에서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원효, 그리고 그런 원효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기도하는 요석의 애달픈 목소리를 들었다. 설렘과 감동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독이며,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소설 원효〉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이지현**은?

법학박사이며 헌법학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국회와 행정부에서 일했고, 여성단체와 문화예술 단체에서 활동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불교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불교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오랜 꿈을 일깨웠다.

법학자의 시선으로 〈판비량론〉을 읽은 뒤 원효의 삶을 소설로 그려내기에 이르렀다. 무엇에도 걸림 없는, 원효의 무애(無碍)와 일심(一心) 사상이 한 마음과 한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믿는다. 쓴 저서로는 역사 인물 허균을 다룬 〈400년 만의 만남–그리운 허균 당신에게 보냅니다〉 청소년 법 교양서인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등이 있다.



웃으면서 떠나야 진짜 행복한 삶이다!
죽음을 알면 삶이 바뀐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죽음은 삶과 동전의 양면이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삶을 유익하게 잘 살 수 있다.
오진탁 지음/국판/376쪽/값 18,000원/자유문고

진정한 정토불교의 가르침을 만나다!
정토 수행 지침서 1
정토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정토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정토수행이 최고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영화 지음, 조소영 옮김/국판/328쪽/값 15,800원

불교에 기대지 말고 기여하라!
나는 자까오 화상이 아니다
'자까오'는 '불교에 기대어 먹고 사는' 것을 말한다. '내가 불교에 의지하지 말고, 불교가 나에게 의지하게 하자'를 평생 지켜온 성운대사의 삶을 만날 수 있다.
성운대사 지음, 조은자 옮김/신국판/380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도자회화로 표현한 우리문화재의 아름다움

최원선 개인전 'Cherish'
갤러리아리수 11월 3~9일

경천사지10층석탑 등 우리문화재 소재
우리문화재 도판에 새긴 작품 40여 점
도구로 물감 바른 도판 긁어 형체 묘사
수백, 수만 번의 선들 겹쳐져 작품완성
완성 그림 유약 입혀 고온 가마서 구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과거 지나간 것의 흔적, 옛 건물, 오랜 세월을 지나온 유물들에는 혼이 담겨있다. 그런 것들은 우연히 때로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기도 한다. 이들 중 개인적인 것은 추억이라 부르며 국가나 인류의 역사적인 것들은 전통이라고 부른다. 오래된 사진 속의 기억들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에게서 남겨진 것들, 이들 중 우리의 역사 속에 또는 개인적으로 기억되어야 할, 소중히 간직하고 전해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

우리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하는 전시다. 도자회화 영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최원선 작가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리수갤러리에서 개인전 'Cherish'를 개최한다. 작가는 소중한 우리문화재 이미지를 도판에 새긴 도자회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도자회화는 다른 회화에 비해 보존성이 좋아 오랜 시간 동안 형태와 색이 변하지 않는다. 작가는 소중한 것을 보관하듯 오래된 건물, 고궁, 유물 등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 안에 있을 우리만의 혼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캔버스가 아닌 도판에 새긴 우리문화재는 더욱 우아하게 빛난다.

△작품 '경천사지10층석탑 Ⅰ·Ⅱ·Ⅲ'의 경천사지10층석탑(국보 제86호)은 고려시대의 탑으로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 가장 높고 넓은 공간에 설치돼 있다. 규모에서 느껴지는 웅장함과 위엄이 대단하며 많은 이야기도 담겨져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크게 손상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부분도 있지만 탑은 아직도 관객을 압도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탑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픔 속에서도 보이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했다.

△작품 '경회루 측면'의 경회루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건물이다. 잔잔한 호수와 함께 완성도 높은 구도를 보여주는 측면의 경회루를 한 폭의 풍경화처럼 단아한 모습으로 도판에 옮겼다.

△'경복궁 지붕'은 경복궁의 재미있는 조각들을 작품으로 연결한 것으로 작품 속의 잡상은 궁궐지붕 처마 끝을 장식하는 흙으로 만든 일종의 장식기와다. 동물모양을 하고 있는 잡상은 장식적인 역할과 함께 살(煞)을 막아준다는 주술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지붕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면서 좋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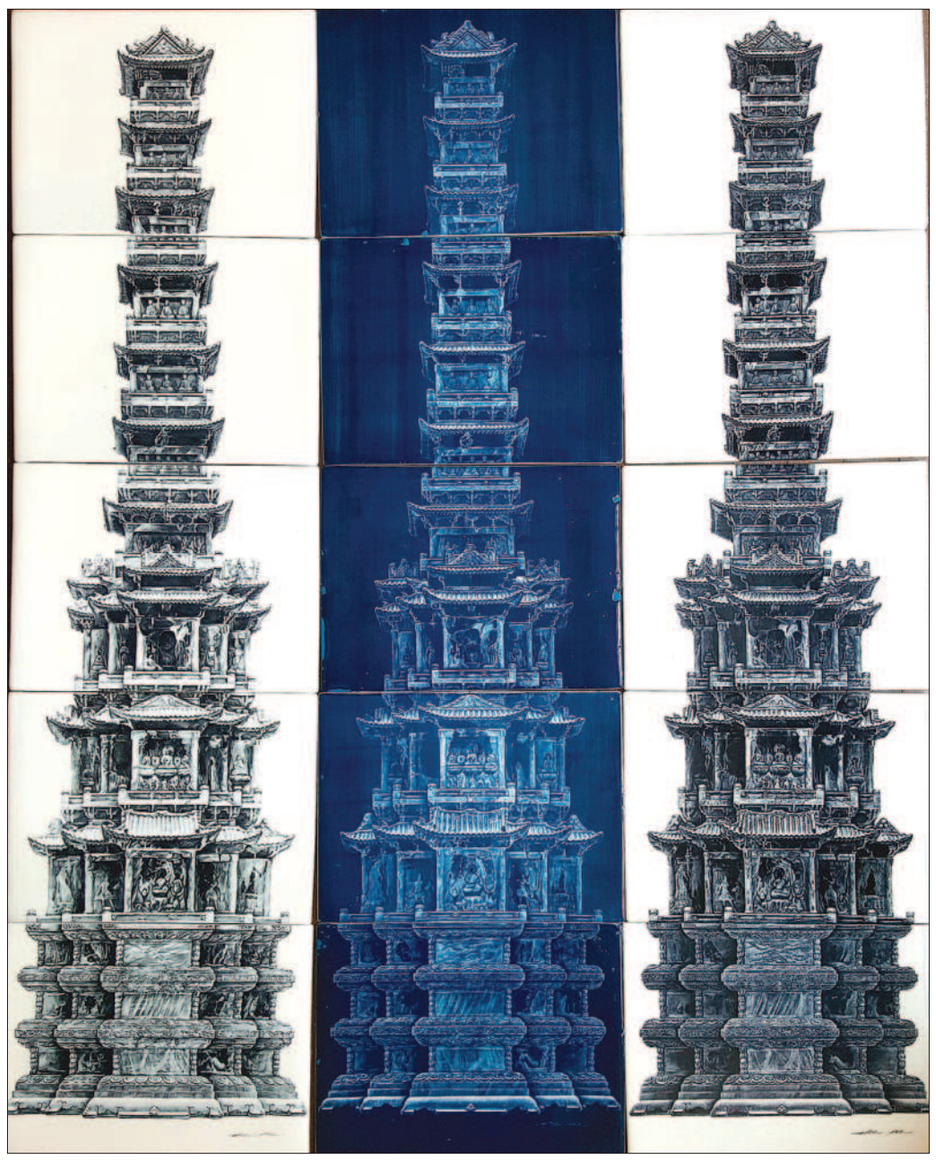
최 작가는 작품의 소재를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종이에 연필 스케치로 작품을 준비한다. 그리고 뾰족한 도구로 물감을 바른 도판을 긁어 형체를 묘사한다. 가는 선들을 겹겹이 그어 원하는 형태와 질감을 표현하는데 수백에서 수만 번의 선들이 겹쳐져 하나의 작품이 된다. 완성된 그림은 유약을 입혀 고온의 가마에서 구워진다.

최 작가는 "도자회화는 가마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 가마에 넣었던 작품들이 뜻하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힘들게 준비한 만큼 애착이 많이 간다. 우리 문화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예술성과 이야기를 넣어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관람객과 느끼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밖에도 최 작가는 '석가탑(310mm 원형백자 도판 1240℃ 산화소성 2021)', '다보탑(310mm 원형백자도판 1240℃ 산화소성 2021)', '경복궁 사신 청룡 · 현무 · 주작 · 백호(150200mm 백자도판 1240℃ 산소화성 2020)' 등의 작품을 통해 도자회화에서 느낄 수 있는 미학과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장소나 물건들, 나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어떤 것, 나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있어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어떤 것을 그린다. 도자회화는 오랜 세월을 견디어내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간직하고 싶은 것을 그려 담기에 좋다. 나의 작업은 판화의 에칭기법을 도자회화에 접목한 세라칭(Ceraching · ceramic etching)기법으로 작업한다. 이 기법은 세밀하게 묘사하는 데 적합하여 장면을 기록하기에 용이하다. 나의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남겨지고, 사라져 가는 것들이 고이 간직되기를 바란다."

최원선 작가는 중앙대학교 서양화학과 학사,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도자회화학과 석사 출신으로 일반회화와 도자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창작력으로 수준 높은 작품을 제작하여 도자회화 장르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1994년부터 네 모판화전, 제7회 미술세계대상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이번에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1999년 미술세계대상전 판화부문 입선했다.



최원선 作, 경천사10층석탑_Ⅰ·Ⅱ·Ⅲ 1200×1500mm 백자도판 1240℃ 산화소성 2021.

조계사 불화모임 화엄회 회원전 개최



임은선 作, 영산회 괘불도 136×95cm 면본, 분채,안료,금박,금니

제 3회 일현문도 화엄회 불화전
경인미술관 5전시실 11월 3~9일
영산회 괘불도 등 불화 20여 점

조계사 불화그리기 모임인 화엄회(회장 최영군)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제5전시실에서 '제3회 일현문도 화엄회 불화전'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비해온 이번 전시는 최영군의 산신도, 임은선의 영산회 괘불도 등 회원들의 불화 20여 점을 선보인다.

최영군 회장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현 이철승 교수님의 지도와 화엄회 회원분들의 끊임없는 용맹정진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로 화엄회가 제3회 불화전시회를 열게 됐다. 2년여 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지친 회원들과 관객 대중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전시의 과정과 의미를 밝혔다.

불화를 그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일을 넘어선 신행과 수행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 특히 미술이나 불화 전공자가 아닌 일반 불자들에게 불화를 그리는 일은 간단치 않은 큰 원력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급, 중급, 고급반을 거치게 되어 있는 화엄회에서는 7년차가 되어야 여법한 불화 한 점을 그릴 수 있다. 이번 작품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1년 넘게 작업한 작품들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수행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계사 불화모임 화엄회는 2015년 3월 '오분향회(회장 최영군)'로 결성됐다. 2017년 제1회 불화 정기전을 개최했으며, 2018년 일현문도회 불화 특별전에 동참했다. 2019년 제2회 불화 정기전을 개최했으며, 2020년 모임의 명칭을 화엄회(회장 최영군)로 바꾸고 재출범했다. 2020년 5월 광주 마하보리사에서 불화 특별 초대전을 개최했다.

박재완 기자

송광사 불교굿즈 '빨간 목탁' 서울서 만난다

문화사업단, 11월까지 불교문화상품 특별전

송광사 명물 불교굿즈인 알록달록 도자기 목탁이 '빨간 목탁'으로 브랜드화 해 서울서 만날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 자체 제작한 불교문화 상품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

첫 번째는 순천 송광사의 '빨간 목탁'이다. 전시는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간이며,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만날 수 있다.

탁구공만한 크기의 빨간 목탁은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이 손수 빚은 도자기 목탁이다. 유약 채색까지 마친 후 송광사에 마련된 도자기 가마에서 구워 만들었다.

사찰의 단청 등에서 볼 수 있는 오방색인 빨강을 비롯해 파랑, 노랑, 초록,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송광사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빨간색을 브랜드화해 '빨간 목탁'이라고 명명했다.



템플스테이홍보관에서 전시되는 불교굿즈 빨간목탁. 송광사 주지 자광 스님이 손수 빚은 도자기 목탁이다.

문화사업단은 개별 사찰의 특별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가치와 불교문화 정신을 알리고, 사찰에서 개발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대중에게 알릴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사)대한불교 연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지 명**

사서실장 **현월** 호계원장 **범정** 포교원장 **정각** 문화원장 **삼공**
감찰원장 **승훈** 교육원장 **법성** 법사원장 **덕행** 기획원장 **지호**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 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총무원장 : 지명 혜광 HP : 010-7109-3111
총 본 산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상동로 465-11 **전화** : 054-481-3110 **팩스** : 054-481-3123

문화관광부 등록 종단임 |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미륵사지 석등, 디지털로 부활하다

국립익산박물관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展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 불교의 위용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 있다. 백제 무왕 시기에 창건돼 조선시대 폐사된 익산 미륵사는 현재는 석탑 한 기와 당간지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건축물은 사라져 그 영욕의 세월을 느끼게 해준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륵사지 출토 유물 중에는 '석등(石燈)'도 있다. 오래 전 석등은 어두운 밤, 사찰을 밝혔던 역할을 했다. 미륵사에는 본래 3개 이상의 석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2개의 하대석과 부재들만 존재하고 있다.

1400년 전 어둠이 내린 익산 미륵사를 밝혔던 석등이 디지털로 복원됐다.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흥선)은 10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익산박물관의 '미륵사지와 고대 불교사원' 조사사업 중 하나인 창건기 미륵사 석등의 디지털 복원 사업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이다.

3개 이상 존재한 미륵사 석등
현재 하대석, 부재 13점 남아
부재들 실측 통해 디지털복원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에 활용

현재 남아있는 미륵사지 석등 유물은 동원 · 중원의 금당지와 탑지 사이에 남아있는 하대석 2점과 다양한 위치에서 발견된



하대석과 부재만 남았던 익산 미륵사지 석등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복원됐다. 사진은 복원된 석등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나만의 석등 만들기' 체험 모습.

화사석, 옥개석 등 총 13점이다.

국립익산박물관은 13점의 석등 부재를 모아 3차원 실측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부재의 원래 모습을 디지털로 복원했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경우의 수로 조립해 창건기 미륵사 석등의 옛 모습을 재현했다.

전시실에서는 미륵사지 석등 부재를 3D 스캔해 제작한 모형을 직접 조립해 보거나, 높이 6.6m 대형 화면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나만의 석등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등명(燈明)으로 나투실 미륵불을 형상화한 미륵사 석등을 연등(燃燈)으로 제작하여 석등에 불을 밝히는 점등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에는 현전하는 익산 미륵사지 석등, 부여 가탑리 석등 하대석, 공주 탄천 정치리 석등 하대석 등 백제 석등 3점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점도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석등의 기원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백제 사찰 안에 석등이 서 있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부여 외리 출토 산수무늬 벽돌(山水文塼)의 모티프를 활용한 3D 홀로그래픽 글래스 아트도 선보여, 백제 석등의 원형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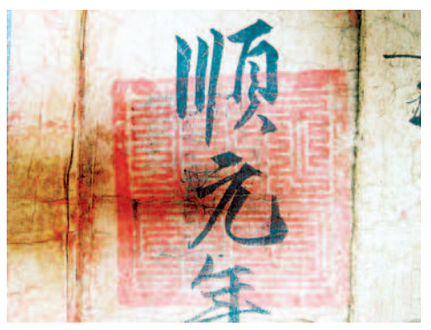
국립익산박물관은 "석등은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빛'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자, 사찰안의 어떤 조형물보다 우리 민족의 조형 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요한 창조물"이라며 "미륵사지에는 이러한 석등이 3개 이상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정확히 고증 · 복원하고, 더 나아가 사찰에 재현해보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등은 우리나라 불교 사찰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흔하지만, 흔한 만큼 사람들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백제 석등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찰 잡역 면하노라" 세조 교지 보물된다

무위사 감역고시 등 7건 보물로
문화재청 10월 29일 지정 예고
세조 서명 · 날인 명확하게 남아
조선 초 사찰 경제사 중요 사료
색난 불상 · 진관사 태극기 '보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된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사진 왼쪽〉 사찰에 부여된 잡역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조의 서명〈사진 가운데〉과 어보 '시명지보'〈사진 오른쪽〉 날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당시 불교 정책과 인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조선 세조가 사찰의 잡역을 감면해주기 위해 내린 교지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조선 세조가 사찰 잡역을 면제하기 위해 내린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를 비롯해 고려 · 조선 시대 전적 및 불교조각, 괘불도 등 7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불교문화재는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를 비롯해 △대구 용문사 소장 '대승기신론소 권하' △법장사 소장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인 〈무예제보〉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세조가 강진 무위사의 잡역(雜役)을 면제하는 명령을 내린 국가의 공식적인 교지 문서다.

이는 당시 조선왕실의 불교 정책 중 하나였다. 세조는 1457년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했고, 같은 해 7~8월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했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당시 발급된 감역교지로 원본이 전해지는 것은 무위사 교지를 포함해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뿐이다. 하지만 강진 무위사를 제외하면 이 3건은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의 가장 큰 특징은 세조의 서명인 어압(御押, 임금의 사인)과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가장 명확하게 남아있는 점이다. 이는 조선 전기 국왕 발급 문서양식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 세조 당시 사찰 정책과 인식을 살필 수 있게 한다. 또한 조선 사찰 경제사와 불교사 등 관련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강진 무위사에 발급된 감역교지로서는 유일한 자료로서 희소성과 역사성이 분명하다"면서 "같은 시기 작성된 다른 문서들과 함께 역사 · 학술적인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구 용문사 소장 '대승기신론소 권하'는 당나라 승려 법장(643~712)이 저술한 총 3권을 저본으로 1461년(세조 7년)에 간경도감에서 만든 목판으로 찍은 불경 중 권하(卷下)에 해당하는 1책(33장)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법장의 〈대승기신론소〉는 1457년(세조 3)년에 간행된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갑인자로 찍은 금속활자본)과 1528년(중종 23년), 1572년(선조 5년)에 중간(重刊)된 목판본 등이 있으나, 1461년에 간행된 사례로는 용문사 소장본이 유일하다.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은 11세기에 완성된 고려 초조대장경에 속한 경전으로서, 총 200권 중 권175의 1권에 해당하는 두루마리 경전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권175의 유일본인 법장사 소장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은 고려 초조대장경판 조성 불사의 성격과 경전의 유통 상황 등을 파악하고 경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 자료로서의 역사 · 문화적인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제작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1599년 중수기(重修記)와 전체적인 조각양식을 통해 고려 후기~조선 초기에 조성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복장(腹藏) 후령통에서 발견된 중수기에 의하면, 이 보살상은 조각승 석준과 원오가 1599년에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상과 함께 중수한 것으로, 보현사와 상원사의 성격 · 승려 문중 · 후원자 등에서 유사한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신흥사 대웅전에 봉안된 대세지-관음보살좌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삼존상 중 본존상에 해당된다. 17세기 전반기 전국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 영색이 조성한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경상도 지역에서 '불석'이라는 재료를 사용해 만든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기년명 불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1832년(순조 32년)에 수화승 화담신선을 비롯해 총 17명의 화승이 조성한 왕실 발원 불화다.

흥천사 괘불도의 가장 큰 특징은 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처의 제자들인 가섭 · 아난존자, 사자와 코끼리를 탄 문수 · 보현동자가 결합한 구성과 함께 '부처-제자-동자(문수 · 보현)' 도상을 상 · 중 · 하단으로 배치한 구도는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서울 · 경기지역의 괘불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17세기 승려 장인인 색난이 조성한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과 불교 항일유산 '진관사 태극기'를 10월 25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공고했다.

신성민 기자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KBS '6시 내고향' TV방영


전용 3땀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0

▶ 41회 예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온 특사단장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에게 보고하고자 궁궐 집무실로 간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진 빈두사라왕은 별궁 침소에 있다. 라다굽따는 그곳으로 가서 빈두사라왕에게 보고하고 난 뒤 다르마 왕비도 만난다.



아쇼까, 데비에게 청혼하다

라다굽따 특사 일행과 담마팔 사문이 빠딸리뿌뜨라로 출발하기 하루 전이었다. 아쇼까는 이미 측근 참모들에게 환송연을 준비하도록 명했다. 호위대장은 어제 아침에 일찌감치 베디샤 상인수장 데바와 데비를 초청하기 위해 웃자인을 떠났다. 경비대장은 군사를 시켜 웃자인 부근 도시의 우두머리 관리들에게 환송연을 알리도록 지시했다. 심복인 선봉대장만 궁궐에 남아 아쇼까를 보좌했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부왕님께서 라다굽따 특사께서 오시던 날 소장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제야 아쇼까는 생각난 듯 말했다.

"그날 밤 대장이 말했소. 상인수장 데바의 딸 데비를 부인으로 삼는다면 아반띠국의 모든 상인들이 더욱 충성할 것이라고 말했소."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대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오. 그러나 나는 정략적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싶지는 않소."

선봉대장이 아쇼까의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다물었다. 아쇼까의 생각이 자신과 다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는 데비를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데비의 마음이 아름답다고 느꼈소. 데비를 닮은 자식이 있다면 웃자인에 있는 동안 나는 행복할 것 같소."

아쇼까는 아상디밋따가 마음에 걸렸지만 라다굽따가 가져온 그녀의 편지를 읽고는 그런 부담도 덜어버린 상태였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아상디밋따가 아쇼까 부왕이 다른 여인을 만나 자식을 갖기 바란다고 편지에 밝혔던 것이다.

"아상디밋따는 나에게 다른 부인을 만나도 좋다고 했소. 진심이니 망설이지 말라고 했소."

"부왕이시여, 오늘 밤을 넘기지 마십시오. 환송연 중에 데비를 불러 청혼하십시오."

"대장, 내가 원하던 바요."

아쇼까는 선봉대장에게 환송연 중에 데바와 데비를 접견실로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아쇼까가 데비에게 청혼할 것이니 귀띔해주라고 했다. 환송연에 왔다가 갑자기 청혼을 요청받은 데비가 당황할 수도 있었으므로 사전에 알려주라는 말이었다.

"부왕님, 데비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됩니다. 여자의 마음과 개구리 뛰는 방향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맡긴 것이오."

"환송연 중에 소장이 데비의 마음을 떠보겠습니다."

"데비가 당황하지 않도록 잘 말하시오."

"부왕이시여, 반드시 데바와 데비를 접견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선봉대장은 빠딸리뿌뜨라를 떠날 때만 해도 진압군을 이끈 대장이었지만 지금은 아쇼까의 심기까지 살펴서 일을 처리하는 측근참모 역할을 했다. 경비대장과 호위대장도 그의 수하에 있었다. 아쇼까가 모든 비밀을 터놓고 말하는 사람은 빠딸리뿌뜨라 출신인 선봉대장뿐이었다. 경비대장과 호위대장은 웃자인 출신으로 용의주도한 아쇼까에게 아직 심복은 되지 못했다.

호위대장에게 연락을 받은 데바와 데비는 다음 날 아침에 베디샤나가르 농원을 떠났다. 집사 타리쉬가 특별히 관리해온 말은 지치지 않고 빨리 달렸다. 데바가 앞서고 데비가 뒤따랐다. 데비는 말을 타고 달리는 내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차림에 신경 썼다. 귀걸이와 팔찌, 발찌는 최근에 데바가 사다준 것으로 찼지만 새 옷은 농원 저택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데바는 딸 데비가 입고 있는 붉은 사리와 에메랄드 빛깔의 비단 치마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데바가 힘겹게 뒤쫓아 오는 데비를 위해 잠시 뻡빨라 나무 그늘로 들어가 쉬면서 말했다.

"데비야, 너는 무슨 옷을 입든 잘 어울리는구나."

"담마팔 사문님을 오늘밤에 뵈는데 옷이 이래서 아쉬워요."

"웃자인 저택에도 옷이 있지 않느냐?"

"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웃자인 저택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 있을 거예요."

"바라나시에서 사온 붉은 비단옷이 있을 거야."

데바는 까시국 수도 바라나시에 무역하러 갔다가 아내와 데비 옷을 사다준 것을 기억해냈다. 까시국에서 생산한 비단 사리와 저고리와 치마였다. 데비는 다른 나라로 무역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아내와 딸 데비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왔던 것이다.

웃자인 저택으로 돌아온 데비는 하인들에게 목욕물을 데우게 했다. 데비 자신은 옷장에서 푸른 비단사리와 붉은 저고리와 치마를 꺼내 입고는 청동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었다. 데바는 데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데비야, 부왕님 눈에 띄려고 그러니?"

"아니요, 담마팔 사문님께 예의를 갖추려고요. 사문님께서 빠딸리뿌뜨라로 떠나시면 언제 다시 뵐지 모르니까요."

데바와 데비의 생각은 분명 달랐다. 데바는 데비가 환송연에서 아쇼까의 눈에 잘 띄기를 바랐고, 데비는 그동안 스승처럼 의지하고 믿었던 담마팔 사문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데바가 말했다.

"네 말대로 담마팔 사문이 다시는 산치 절에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담마팔 사문께 배우려고 왔던 어린 사문들도 하나 둘 떠날 거예요."

"그렇다면 아반띠국 안에서 고승을 찾아봐야겠구나."

데바는 담마팔 같은 고승을 초빙해 자신이 조성한 산치동산 절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생각했다. 절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무역 때문에 멀리 떠나 있더라도 든든했다. 실제로 데바는 사문들의 기도 덕분에 무역을 잘 해왔다고 믿었다. 산치동산 절의 사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기도해 주었던 것이다.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는 시각이 되자,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데바와 데비는 수레를 타고 저택을 나섰다. 궁궐 정문에는 벌써 수십 대의 수레가 도착해 있었다. 환송연에 참석할 여러 도시의 관리와 상인수장들이 타고 온 수레였다. 정문에서는 경비대장의 지시를 받은 경비군사들이 간단한 검문을 했다. 데바와 데비도 검문을 받고 통과했다.

궁중연회장 앞뜰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정문을 통과한 관리와 상인들이었다. 호위군사들은 궁중연회장을 일정한 간격으로 빙 둘러서 경호 중이었다. 궁중연회장 문이 열리자 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입장했다. 데바와 데비도 연회장에 들어가 창문 옆자리를 잡았다. 창문의 비단 커튼이 강바람에 나풀거렸다. 시프라강 너머 들판은 어스름이 깔리어 어둑어둑했고, 검붉은 카펫 같은 노을은 여전히 서녘하늘에 걸려 있었다.

이윽고 특사 일행이 입장했다. 환송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특사 일행이 앉을 자리는 연회장 맨 앞줄이었다. 특사단장 라다굽따와 담마팔 사문은 앞줄 중앙의 식탁 의자에 앉았다. 데바와 데비는 담마팔에게 다가가 합장했다. 데바가 말했다.

"사문이시여, 청안하소서."

"상인수장이시여, 어디를 가더라도 데바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소."

데비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문이시여, 빠딸리뿌뜨라로 가시더라도 저희 가족을 잊지 말아주세요."

"데비, 그동안 우리 사문들에게 올린 공양을 잊지 않겠소."

데비가 무릎을 꿇고 담마팔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사문에게 존경을 표하는 곡진한 동작이었다. 담마팔 사문은 무릎을 꿇은 그녀의 머리를 만지며 축원해 주었다.

"붉은 연꽃처럼 아름다운 데비를 나는 찬탄하노라!"

담마팔 사문이 축원하는 동안 데비는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어둔 방에 햇살이 비추는 것 같았다. 옆에서 지켜보는 데바도 감격했는지 합장한 두 손을 이마까지 올렸다.

아쇼까가 입장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환송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하얀 예복을 입은 아쇼까를 맞이했다. 특사 일행은 아쇼까가 자리에 착석한 뒤까지 박수를 쳤다. 환송연을 열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박수였다. 아쇼까는 손을 들어 흔들면서 응했다. 데바와 데비도 박수를 쳤다.

궁중요리사들이 요리한 음식이 나온 뒤에는 빠딸리뿌뜨라까지 무사히 돌아가기를 빈다는 아쇼까의 짤막한 환송사와 그동안의 환대에 감사한다는 라다굽따의 답사가 이어졌다. 연회장은 작별의 아쉬움보다는 곧장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선봉대장의 건배사가 끝나자마자 술잔이 오갔다. 연단에 오른 무희들이 궁중악단의 연주에 맞추어 춤을 추자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선봉대장이 아쇼까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부왕님, 지금 데바 상인수장을 접견실로 안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선봉대장은 마치 작전을 하듯 아쇼까와 사전에 상의한 대로 민첩하게 움직였다. 데바와 데비가 앉은 자리로 가서 선봉대장이 말했다.

"데바 상인수장이시여, 부럽소."

"무엇이 부럽다는 것이오?"

"아쇼까 부왕님께서 데비와 함께 접견실로 오시라고 했소."

"데비까지 말이오?"

"놀라지 마시오. 부왕님께서 청혼하신다고 했소."

데바와 데비가 동시에 놀랐다. 그런데 놀람의 강도는 서로 달랐다. 데바는 뜻밖의 행운에 감격했고, 데비는 상상 밖의 일이었으므로 당황했다. 데바가 놀란 데비를 안심시켰다.

"데비야, 진정하거라."

"아버지, 어머니 간병은 누가 하나요?"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너도 알다시피 이제는 산책도 하지 않니?"

"아버지 뜻을 따르겠지만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요."

데바가 데비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나를 믿거라. 너의 고귀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데바와 데비는 선봉대장을 따라서 궁궐 접견실로 갔다. 데바는 접견실을 한 번 들른 적이 있었으므로 낯익었지만 데비는 높은 천정과 번쩍거리는 장식품들을 보고 어리둥절해 했다. 선봉대장은 접견실까지만 안내하고 환송연장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아쇼까가 환송연 자리에서 바로 온 듯 예복차림으로 나타났다. 데바와 데비가 서 있자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내가 불렀소. 편하게 앉으시오."

"예, 부왕님."

"왜 불렀는지 선봉대장에게 들었지요?"

"예, 부왕님."

"나는 오늘밤 데비에게 청혼하려고 하오. 허락해 주시오."

아쇼까가 데비의 눈을 보며 말했다. 데비는 아쇼까를 바로 보지 못했다. 아쇼까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다. 혼인을 청하는 아쇼까의 눈빛은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데바가 합장하며 말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좋소. 데비가 원한다면 시프라강 언덕의 별궁을 내주겠소."

데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부왕님이시여, 머리가 어지러우니 밤공기를 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오."

거침없는 성격답게 아쇼까의 말투는 시원시원했다. 데바는 데비의 손을 잡고 접견실을 나왔다. 데비는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빠져나온 반달이 달빛을 뿌렸다. 데비의 얼굴은 곧 혼절할 듯 창백했다. 기어코 데비는 데바에게 안긴 채 쓰러져 버렸다.〈계속〉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20 돈오



▶ 한줄 요약
선(禪)에서는 깨달음을 단박 깨침, 돈오(頓悟)라 한다. 다른 말로는 직지(直指),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라 한다.

돈오란? 무아를 단박에 깨침이다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란 누구인가? 깨어난 이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중도, 팔정도, 사성제, 무아를 깨달았다.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가? 부처님은 누구나 깨달음의 성품인 불성(佛性)을 갖추고 있으니 마음을 닦아 깨치면 부처가 되어 생사윤회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대자유를 누린다고 하셨다.

부처님의 설법을 모아놓은 팔만대장경에서, 초기경전에 근거한 남방 상좌부 불교와 대승 교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깨달음의 길을 계정혜 삼학 수행을 하여 세세생생 닦아 아라한과 또는 부처가 된다고 한다. 즉, 번뇌망상을 지닌 중생이 금생뿐아니라 윤회를 거듭해서 닦아 수다원 - 사다함 - 아나한 - 아라한과를 이루는 4단계 또는 9단계나 대승 〈화엄경〉처럼 52계위를 차례로 닦아 완성하는 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선의 깨달음, 돈오(頓悟)

그런데 선(禪)에서는 깨달음을 단박 깨침, 돈오(頓悟)라 한다. 다른 말로는 직지(直指),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라 한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보아 부처가 된다' 하거나 '한 번 뛰어 여래의 지위에 바로 들어간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선(禪)에서는 돈오, 직지, 일초직입여래지라 할까? 6조 혜능대사는 〈육조단경〉 '돈오(頓悟)' 편에서 이렇게 말한다.

"선지식아, 나는 홍인화상 회하에서 한 번 듣고 말끝에 크게 깨쳐(言下大悟) 진여본성을 단박에 보았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법을 뒷세상에 유행시켜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단박에 깨달아(頓悟) 각자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 성품을 단박에 깨닫게(頓悟) 하려다."

이 혜능대사의 법문에 선종의 깨달음, 돈오에 대한 설명이 잘 드러나 있다. 혜능은 스승의 〈금강경〉 설법을 듣던 중 크게 깨달아 자기 성품이 무아라는 것을 단박에 보았다. 자기가 본래 무아라는 것을 찰나 간에 깨치고 이 무아의 가르침을 후대에 널리 전한 것이 돈오선(頓悟禪)이다.

돈오선을 조계선(曺溪禪)이라고도 하는데, 6조 혜능대사가 주석한 조계산에서 천하에 전파된 선(禪)을 말한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조계사 이름이 바로 이 조계 혜능대사의 돈오선에서 유래한다.

돈오선의 혜능과 점수(漸修)의 신수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선종의 6조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 인물은 혜능과 신수다. 안타깝게도 한국과 일본의 일부 불교학자들은 아직도 선종의 6조를 혜능이 아닌 신수라 주장하고 있다. 선문(禪門)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선문에서 신수대사를 6조로 추앙하고 참선하는 도량은 어느 곳도 없다. 왜 그런가? 실참을 중시하는 선사들은 신수대사를 선의 종지를 깨친 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신수는 깨달음에서 점수(漸修)를 주장했다. 즉 우리를 중생으로 본다면 중생이 세세생생 닦아서 마침내 부처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런 점수설은 교학의 입장과 다를 바 없었다. 신수의 점수설에는 선종의 정체성, 특색인 돈오가 없다. 선종의 종지를 잃어버리고 교학으로 치중해버린 것이다.



2005년 전국선원수좌회 중국 조계산 남화선사 선원 방문 기념(뒷줄 왼쪽 두번째가 필자)

이에 반하여 혜능 대사는 돈오선을 주창했다. 누구나 깨달음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찰나간에 깨치면 부처가 된다 하니 깨달음에 가장 빠른 최상승법을 일러준 것이다. 이것이 禪이다. 혜능은 무지한 나무꾼 출신의 행자에 불과하였으나 스스로 깨달음의 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믿고 찰나간에 깨치고 그 길을 알려주었다. 깨달음을 향해 출가한 수행자들은 혜능의 단박 깨치는 선에 열광하며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러나 신수 대사의 점수법은 2대에 이어 3대 제자에 가면 법맥이 흐지부지 되어 끊어져 버렸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는 서울 잠실의 123층 건물이 있는데 그 꼭대기 전망대까지 올라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계단을 통해서 걸어서 123층을 올라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층에서 초고속 엘레베이터를 타고 단번에 123층에 오르는 길이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의 몫이겠지만, 대다수는 단번에 가는 길로 간다. 깨달음의 길도 이와 같다. 선(禪)은 123층까지 단번에 오르는 길이고, 점수는 계단으로 걸어서 123층에 오르는 것과 같다. 남방불교의 위빠사나와 대승 교학도 점수의 수행관이니 계단을 통해서 오르는 이치와 같다. 오직 돈오를 주창하는 선만이 단박에 깨치는 길을 제시하니 당시나 지금이나 선의 가치는 저 하늘의 밝은 해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유행 수행법은 점수
돈오 수행의 가치 희소해
단계별보다 '단박' 장점지녀

돈오하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라

조계의 돈오선은 무아를 단박에 깨달아 부처되는 길을 제시한다. 만약 무아를 바로 깨치지 못하면 선지식을 찾아가 지도를 받아 자기가 무아임을 깨치라 한다.

그럼 선지식(善知識)은 누구인가? 과연 어떤 이를 선지식이라 하는가? 최상승법(最上乘法)이 바른 길임을 알고 바로 보여주는 분이 선지식이다. 최상승법이란 깨달음의 가장 빠른 길이다. 선(禪)은 단박 깨치는 돈오를 말하니 최상승법이다. 선지식이란 최상법인 선(禪), 돈오, 직지를 바로 알고 보여주는 분을 말한다. 123층 꼭대기 전망대를 올라갈 때 둘러가는 계단 길이 아닌 엘레베이터 길을 바로 알려주는 분이 선지식이다.

누가 선지식인지 알려면

그런데, 요즘은 너도나도 깨달았다고 견성했다고 말하니 누가 선지식인지 알기가 참 어렵다. 지금 우리 불교계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123층을 바로 올라가는 엘레베이터 길을 모르고 계단 길이 바른 길이요, 빠른 길이라 잘못 알고 그런 길을 알려주는 이를 선지식으로 삼아 공부하면 평생 고생만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상승법의 바른 길을 알려주는 선지식을 만나려면 스스로 바른 안목인 정견을 갖춰야 한다. 만약 자기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망념으로 전도되면, 눈앞에 선지식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불제자라면 불교의 근본교리인 중도, 팔정도, 무아, 공을 공부하여 바른 안목인 정견을 세워야 한다. 불교의 정견이 서게 되면 누가 부처님 법에 의거하여 법을 설하는지? 누가 부처님 법이 아닌 '내가 있다' 는 입장에서 아상을 세우는지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게 된다.

불교는 역사가 오래되고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법문이 다양한 언어로 설해져 다양한 사상과 이론이 펼쳐져 있다. 때문에 불교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불교는 중도, 팔정도, 무아가 근본이다. 불교의 근본 교리에서 벗어난 법문이나 강의는 외도이다.

선(禪)도 마찬가지다. 선(禪)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말과 문자를 떠나 체험, 실천하는 것이나 그 행이 중도, 팔정도, 무아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삿된 외도가 되는 것이다. 선의 깨달음 돈오도 결국 '나' 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음이다. '나' 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깨침이다.

까닭에 불교의 지혜로 대자유로 가려는 불자라면 반드시 중도연기, 팔정도, 무아의 근본교리를 바르게 공부하여 정견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깨달음의 길에서 선지식의 중요성

여행이나 낯선 곳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고 헤맨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깨달음의 길도 마찬가지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해탈하려면 깨달음을 이루어야 하는데, 깨달음의 길을 잘못 가면 방황하게 된다. 어떤 이는 거꾸로 가기도 한다. 깨달음의 길을 바르게 일러주는 선지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선의 본래성불, 최상승, 돈오의 깨달음을 체득하고 바른 안목을 갖춘 선지식은 매우 희유하고 고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예부터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 6조 혜능대사처럼 머나먼 길을 갔을 뿐 아니라 달마대사를 만나기 위해 2조 혜가대사는 스스로 팔을 자르기도 했던 것이다.

우리도 돈오선을 깨치려면 선지식을 찾아 불교와 깨달음의 길을 묻고 지침을 받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제방 총림과 선원의 방장, 조실, 유나, 선원장 스님이라면 능히 선의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만약, 아직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면 간절히 선지식 인연을 기도하면서 차선책으로 경전과 조사어록을 선지식 삼아 공부해 나가는 것도 한 방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안의 선지식, 정견을 세우는 것이다.

돈오를 종지로 하는 한국선의 가치

한국선은 본래성불과 최상승 돈오선인 바 조사간화선의 종지종풍을 가장 바르게 전승하고 있다. 비록 선이 중국에서 발화하였지만, 중국은 공산화와 문화혁명을 거치며 안타깝게도 선맥이 단절되었다. 일본의 선은 돈오의 종지에서 벗어나 화두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타파하는 사다리 참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남방불교 위빠사나도 점수법이고, 티벳불교 역시 인과법문 위주의 점수법을 말한다.

오직 한국선이 중도 정견과 본래성불, 그리고 돈오를 제창하고 있으니 그 가치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명사적 위기와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도를 바탕으로 직지, 돈오 선풍의 한국선이 대안으로 부각될 날이 올 것이다. 문제는 한국 선 수행자들이 그럴 지혜와 능력을 닦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불교인재원 교수〉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페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페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⑳ 정각 이룬 싯달타 태자



▶ 한줄요약
고행을 거듭하던 싯달타 태자는 니련하에서 목욕을 한 후 수자타에게 우유죽 공양을 받는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며 정각을 이룬다. 천신들은 그곳에 사자좌를 만든다.

싯달타, 보리수 아래서 정각 이루다


그림 · 강병호

이번 회차에서 현전하는 〈석보상절〉 첫 번째 책 제3권을 다 읽는다. 모두 24권인데 현재 10권만 전한다. 3권의 내용은 팔상도의 두 번째 '비람강생'의 관상가 이야기부터 세 번째 '사문유관', 네 번째 '유성출가', 다섯 번째 '설산수도'까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석보상절 4권이 발견된다면 팔상도 여섯 번째 그림인 '수하항마'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마침 나는 이번 이야기의 무대인 수자타 마을을 30년에 걸쳐 두 번 다녀왔다. 처음 1990년 당시 인도를 갔을 때는 수자타 마을까지 가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운 좋게 그 동네 사람 안내로 나이란자라강과 유영굴, 전정각산, 수자타 마을과 수자타 사원을 갔다. 나는 그때 불교 문외한이었다. 그저 건기에 메마른 모래밭으로 변한 강과 돌투성이 산 전정각산에 허름한 굴에서 수행하는 티베트 노스님 두 명, 흙벽에 쇠똥 가득 말리는 한적한 농촌 시골 마을일뿐이었다. 특히 수자타 사원은 퇴락한 힌두사원으로 변해 천불이 새겨진 돌기둥만 한 귀퉁이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2020년에 다시 갔더니 그때는 못 봤던 수자타 공양탑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세워져 있어서 깜짝 놀랐다. 가야(Gaya)역에서 내려 자전거 릭샤를 타고 하염없이 가야했던 보드가야에 공항이 들어서 있었다. 이것을 상전벽해라고 하는 것인가.

수자타 소녀와 우유죽

그때 한 장자(長者)의 딸이 쇠젖(우유)으로 죽을 쑤어 나무의 신령(樹神)을 공양(이바지)하려 하였다. 그 죽이 가마에서 열 자나 솟아올라 그릇에 담기지 않거늘 허공에서 말하였다.

'큰 보살이 저기에 계시다. 네가 전생에 발원한 것이 있으니 먼저 보살께 공양하여라.'

그 딸이 그 말 듣고서야 금으로 된 발우에 담아 니련수(尼連水) 가에 갔다.

수자타는 장자의 딸이었다. 그러나 경전에 따라 이름도 '선생, 난다발라, 난타바라'로 나오거나 촌장의 딸, 도사의 딸로 묘사되기도 한다. 우유에 코코넛과 쌀을 넣고 끓인 유미죽이라고도 하는 죽을 쑤어 원래는 나무의 신령에게 이바지하려 했는데 그 죽이 그릇에 담기지 않고 공중에 분수처럼 솟아올라 나무의 신령이 아니라 곧 정각을 이룰 보살께 금으로 만든 발우에 정성껏 담아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게 들린 허공의 소리는 그동안 사문유관과 여러 곳에 등장한 정거천이라고 〈과거현재인과경〉에 나와 있다.

니련하서 목욕한 싯달타

태자께서 니련하 물에 들어가 목욕하시거늘 제천이 여러 가지 꽃향을 물에 뿌리시니 나무의 신이 가지를 굽혔다. 태자가 가지를 당겨 나오시거늘 도솔천자가 하늘 가사를 입히셨다.〈釋詳3:41a〉

그제야 그 딸이 죽 가져가 들어서 머리 숙이거늘 태자가 받아 자시고 그 발우를 물에 던지셨다.

제석이 가지고 도리천에 가서 탑을 세워 공양하였다. 이 탑은 천상의 네 탑 중의 하나이다. 목욕하신 것이 부처의 나이 서른이시니 주나라 목왕 4년 계미년이다.

정각을 이루기 전의 호칭을 보살과 태자 두 가지로 부르고 있다. 태자가 니련하에 들어가 6년동안 고행하며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먼지로 뒤덮였던 몸을 씻는다. 하늘의 신들은 정각을 이룰 보살에게 갖가지 꽃향을 물에 뿌리고 나무의 신은 극한의 굶주림으로 힘없는 태자를 위해 가지를 드리운다. 태자가 그 가지를 의지해 겨우 물에서 나오니 도솔천자가 하늘 가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대령한다.

그제서야 수자타가 죽을 드리니 받아서 드시고 그 발우를 물에 던진다. 무려 금발우이다. 그 발우를 제석천이 고이 모셔다가 도리천에 탑을 세운다. 〈불설중허마하제경〉 등 다른 경전에는 물의 신인 용왕이 가져가자 제석천이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로 변하여 가져갔다고 한다. 그때 태자의 나이가 서른이라고 하니 우리가 아는 29세 출가와 35세 성도와 다른 경전을 선택한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육십삼장
니련수에 목욕하시고 나가리라 생각하시니 큰 나무 가지가 저절로 굽히니
보리수에 가려 하시며 먹을 것을 생각하시니 장자의 딸이 죽을 바치니〈월인23b〉

육십사장
가지를 잡으시고 뭍에 나오시거늘 도솔천이 가사를 입히옵나니
죽을 자시고 바리를 던지거늘 천제석이 탑에 간직하옵시니

> 니련하서 목욕재계한 싯달타
> 수자타에게 우유죽 공양받고
> 보리수 아래서 선정에 드니
> 천신들 그곳에 사자좌 만들어

떠나가는 다섯 비구들

태자께서 죽 드신 후에 모습이 예전과 같아지시니 교진여 등 다섯 사람이 뵙고 수행이 게을러지셨다고 여겨서 다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보살이 혼자 필발라수로 가셨다. 필발라수는 으뜸이 누렇고 흰색이고 가지와 잎은 파랗고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니 부처께서 이 나무 밑에 앉으셔서 정각을 이루셔서 보리수라고도 하는 것이다.

부처께서 금강정(金剛定)에 드시므로 이 나무 아래를 금강좌(金剛座)라고 한다. 금강정은 굳은 도리에 일정(一定)한 것이다.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가 떠나고 홀로 필발라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는 장면이다. 결국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리 용맹정진을 하고 수행을 오래 하였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에 박힌다. 어쩌면 그리하여 금강같은 선정에 들 수 있는 것이다.

천지신명의 축하와 장엄

태자의 덕이 크시므로 땅이 진동하며 오백 마리 파랑새가 둘러싸고(圍繞) 날며 상서로운 구름과 향기로운 바람이 섞여 있었다. 눈 먼 용도 눈을 떠 상서로운 일을 보고 찬탄하였다. 어떤 가도(迦荼)라고 하는 용이 장수하여 과거의 세 부처의 성도(成道)를 보아 왔다. 세 부처는 구루손불과 구나함모니불과 가섭불이시다. 성도는 도리 이루는 것이다.〈釋詳3:42b〉

용이 권속을 데리고 향기로운 꽃이며 풍류이며 번(幡)이며 개(蓋)를 가지고 나와 공양하니 제천이 먼저 하늘의 번과 개를 가져다가 큰 나무 위에 달아 표식을 해 두었다.

인도(西天) 법도에 따라 모름지기 풀을 깔고 앉더니 천제석이 사람이 되어 공작의 목 빛같은 풀을 베어서 가거늘 태자 보살이 이름을 물으셨다.

제석이 대답하였다. '길상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 풀을 공양하거늘 보살이 받아다가 깔았더니 땅이 진동하였다.

태자가 6년간의 고행과 수행 정진 끝에 정각을 이루자 땅이 온 몸을 흔들며 춤춘다. 오백 마리의 파랑새도 태자를 둘러싸고 하늘은 상서로운 구름과 향기로운 바람으로 가득하다. 눈 먼 용도 눈을 번쩍 떠서 그 모습을 찬탄한다.

용 중에 오래 산 가도라고 하는 용은 과거의 세 부처를 보았는데 이제 석가모니부처를 맞이한다. 그의 권속을 거느리고 향기로운 꽃과 음악, 번, 개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부처께 공양하니 하늘의 여러 신들은 한 발 앞서 하늘의 번과 개를 가져와 큰 나무에 꾸며 장엄한다.

인도에서는 풀을 깔고 앉아 참선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태자가 그에 따라 예사롭게 풀을 깔고 앉으니 천제석이 정각을 이루신 분을 위하여 사람으로 변해 공작의 목빛처럼 영롱한 상서로운 풀을 가지고 태자 옆을 지나간다. 이제 '태자보살'이 그 이름을 물으니 상서의 뜻인 '길상'이라고 대답한다. 경전마다 길상을 사람의 이름이거나 풀의 이름으로 해석한다.

팔만 보리수 위에 앉은 부처

그때 제천이 팔만 보리수에 사자좌를 만들었다. 사자좌(獅子座)는 부처의 자리이시니 사자는 중생들이 다 저어하므로 부처의 위엄과 덕을 비유하여 부르는 것이다.

그 나무의 높이가 팔천리도 있으며 사천리도 있으며 제천들이 여기기를 사자좌에 앉아 계시다 하거든 사납고 박복한 사람은 보살을 보고 풀 위에 앉아 계시다 하였다. 박복(薄福) 복이 별로 없는 것이다.

여러 하늘 신들이 부처를 위하여 보리수 팔만 그루에 사자좌를 만든다. 보리수의 높이가 4000리부터 8000리까지 다양하다. 제천들은 그 모든 자리에 부처가 화현하여 앉아있다 생각하는 반면 복이 없는 사람은 이제 보살이 된 태자를 보고 그저 평범한 풀 위에 앉아있는 것으로만 보인다. 그야말로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찬불가를 부른다.

육십오장
금강좌 꾸미고 사자좌를 세워 팔만 부처께서 앉아 계각기 보이시니
눈먼 용이 눈 뜨고 가도 용이 뵈옵고 네 분 부처의 공양을 이어서 하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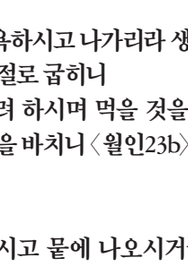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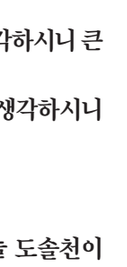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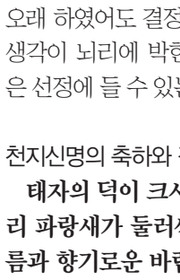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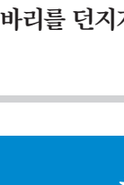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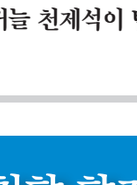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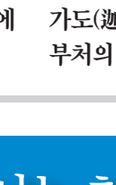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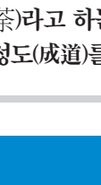
육십육장
필발라수에 혼자 가실 제 덕이 중하시어 땅이 또 드러치니
길상 모초를 손으로 깔 적에 덕이 중하시어 땅이 또 진동하니〈월인24b〉

이렇게 〈석보상절〉 제3권은 끝인 듯 끝이 아닌 스토리텔링으로 맺는다. 위의 내용 중 8000리부터는 책이 헤져서 군데군데 보이지 않는데 〈석가보〉와 관련 경전을 보충해 김영배 교수가 복원했다. 다음 회는 석보상절의 백미를 보여줄 석보상절 제6권의 라후라 출가이야기이다. 기대해도 좋다.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침향 향기나는 초
침 향 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육각초

연꽃칠성촛대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天地大學經
눈밝은 자는 보고, 귀 열린 자는 듣고 인연자는 찾을 것이어라! 혼란과 병란 그리고 비리와 겁액으로 벼랑 끝에 몰린 혼돈 세상을 구현하는 21세기 신세계 메시지 「미륵님의 말씀,진리」를 신인류, 새시대의 구도자들에게 「천지대학경」을 밝히는 바이다. 정진하시옵사 대각 성도 하시옵길 비옵나이다.
- 金山 드림


성의금(671쪽) : 50,000원
● 농협 : 209-02-679386 김남식 ● 전화 : 010-2762-8235 道政院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⑪ 유학생 예나잉 씨



▶ 한줄 요약
한국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인 예나잉 씨의 꿈은 컴퓨터 공학자가 되어서 모국의 대학에 컴퓨터 공학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그의 행동의 근간에는 바로 불교가 있다.

“미얀마에 컴퓨터공학과 만들고 싶어요”

10여 년 전 동국대 불교학부를 다닐 때 “전공명 때문에 사회에서 유명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불교학과 나와서 뭐 해먹고 살수 있냐?”라는 고민을 하던 학생들을 많이 봤다. 불교학부 학사운영지원실에서도 불교계 관련 인턴 제도, 불교계 선배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도우려 애썼다. 불교학부를 졸업했다고 일반 대기업에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며칠 전 동국대 불교학부를 같이 다니던 후배 한 명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반가운 마음에 안부를 물었고 그는 자신의 근황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줬다.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후배는 나에게 마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업무에 치여 살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 힐링이 필요한데, 템플스테이 조용한 곳으로 추천 좀 해줘. 그리고 선배, 마음이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라는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십 년 넘게 불교를 전공하고 있지만,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후배에게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이 쉽지 않았다.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자에 걸려 일상생활 속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 하고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불교를 공부하겠다고 하면 지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겁을 먹거나 큰 마음을 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얀마에 가서 놀란 점 한 가지는 모두들 불교를 공부하는 일에 있어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다.

불교학자인 교수들을 만나도 어려운 빨리어 불교 단어를 설명하기 보다는 ‘팔정도’, ‘사성제’ 그리고 ‘명상’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박사과정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나’라는 마음이 들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만 했지,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며 사는 나를 발견했다. 이번 후배와의 일을 겪으면서 미얀마에서 들었던 조언들이 하나, 둘씩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미얀마 사람들은 화를 잘 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절에 갔을 때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훗날 미얀마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신설하고 싶어 유학왔다는 예나잉 동생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매번 만날 때마다 밝게 웃는 미소, 친절한 태도, 따뜻한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다. 한 번은 그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매번 그렇게 기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누나! 명상이죠”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부처님께 기도해요.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미얀마에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발표 수업을 진행하는 예나잉. 그의 꿈은 모국에 컴퓨터공학과를 만드는 것이다.



재한 미얀마학생회가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한 ‘미얀마의 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예나잉.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전래동화를 들려주잖아요? 미얀마에서 저는 어릴 적에 부처님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고 자랐어요. 잠들기 전 부모님께서 부처님에 관한 일화를 이야기 해주면서 저를 재우셨어요.”

그리고 그는 단기 출가를 3번 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우리나라는 어린 시절에 남자라면 신뿌의식을 통해 단기출가를 해요. 저도 10살 때 신뿌의식을 했어요. 그러고 한 번 더 단기 출가를 했었어요. 20살 이전에 했던 스님 생활은 절의 규칙을 따르고 익히는 데 바빴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출가했던 20살 때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내면의 평화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미얀마는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고 대부분이 불자입니다. 사회적인 관습과 규범도 불교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은 정치인이예요. 그 분의 연설과 행동에서 불교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특히 우리나라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끄는 정책에도 불교적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대부분 불자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부처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모두가 불자라고 해서 순수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불교를 이용하는 진실되지 못 한 불자들도 있어요.”

> **매일 잠들기 전 부처님께 기도**
> **명상하며 스트레스 · 감정 치유**
> **어린 시절 단기출가 3번 경험도**
> **“미얀마서 컴퓨터 공학 공부하는**
> **차세대 공학도 가르치고 싶어요”**



10살에 진행한 단기출가 신뿌의식.

그의 고향은 미얀마 제2의 도시이자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만달레이다. 그는 콘바웅 왕조의 왕이자 만달레이를 수도로 삼았던 ‘민돈왕’을 존경한다고 했다. 존경하는 이유를 들으니 그의 불심을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었다.

“민돈왕을 존경해요. 만달레이에 많은 파고다와 불상을 건립했어요. 그리고 1872년 제 5차 세계불자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약 729개가 넘는 대리석에 경전을 빨리어로 기록했고 파고다로 만들었습니다. 민돈 왕의 불심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해요.”

대리석에 경전을 적기 위해 24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참여했고 약 6개월이 걸렸다. 민돈왕은 경전을 대리석에 새기면서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을 받아 외세의 침략에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을 담았다. 그의 말을 들으니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팔만대장경이 생각났다.

수많은 나라 중 왜 한국으로 유학을 왔냐는 질문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과 미얀마는 문화와 관습이 다른 점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한국도 예전에는 미얀마처럼 불심이 깊어서 한국 문화재에 절이 많다고 들었어요. 한국이 불심이 과거에 깊었던 것도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미얀마와 비슷한 점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 절에 갔을 때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아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부처님 말씀 중에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 정직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진실되려고 노력해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하는 것이 명상이고요.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도와주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올해 8월에 졸업을 하고 열심히 직업을 구하고 있는 그에게는 작은 원력이 있다. 모국에 컴퓨터공학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명한 IT강국이고, 컴퓨터공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미얀마는 아직 컴퓨터공학과가 없어요. 한국에서 배워간 제 지식을 통해 미얀마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싶은 차세대 공학도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공학과를 신설해야 하고, 우선 제가 전문가가 되어야겠죠?”

빙그레 웃으며 부끄러워하는 그에게서 훗날 미얀마 최고의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된 모습이 그려졌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불교란 삶에서 평화와 만족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보물이라는 그의 말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의 불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삶에서 자신의 평화, 더 나아가 조국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평화로운 길을 위해 우리는 자신의 삶과 환경에 만족하는 가치를 배워야 한다. 〈법구경〉에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값비싼 보물이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다’라는 구절이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어가는 탐진치로 인해 몹시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와 나눈 대화를 통해 한국과 미얀마의 평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진한 법향(法香)이 나에게 기분 좋게 물들었다.

〈양곤대 박사과정〉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석정수 스님
010-2766-7677

뻐꾹새 우는 북한산성 약사선원(명상센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묘음보살의 현일채색신 삼매

〈現一切色身〉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㊵ 묘음보살의 자유자재

"화덕이여, 이 묘음보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 주는 자이니라. 이 묘음보살이 갖가지로 몸을 변화시켜 나타내어 이 사바세계 안에서 모든 중생들에 이 경전을 설하지만, 그 신통, 변화, 지혜에 있어서는 아무런 감소도 없느니라. 이 보살이 갖가지 지혜로 사바세계를 환히 비추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며, 시방의 항하 모래알 수의 세계에서도 또한 그렇게 하느니라.

만약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며, 보살의 몸으로 구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며,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설을 설해 주나니,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제도할 바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며, 나아가 열반으로써 제도할 이에게는 열반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화덕이여, 묘음보살마하살의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일이 대개 이러하니라."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이 깊이 선근 심었음을 알겠나이다. 그러하오나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그 무슨 삼매에 머물러 있기에 능히 이와 같이 온갖 곳에 몸을 바꾸어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화덕보살 향하여 이르셨다.

"선남자야, 그 삼매의 이름은 현일체색신(現一切色身)이니라. 묘음보살이 이 삼매에 들어 있으므로 능히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이롭게 하느니라."

이 묘음보살품 설하실 때 묘음보살을 따라 함께 왔던 8만 4천 보살들이 모두 다 현일체색신삼매 얻었으며,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또한 이 삼매와 다라니를 얻었다.

그때 묘음보살마하살이 석가모니부처님과 다보부처님의 탑에 공양을 모두 마치고 본토로 돌아갔다. 지나가는 국토마다 여섯 가지의 진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보배 연꽃의 비가 내리고 백천만억의 온갖 음악 소리가 일어났다. 본국에 이르자 8만 4천 보살에게 둘러싸여 정화수왕지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을 친견하고 다보부처님의 탑을 찾아 예배하고 공양하였습니다. 또 문수사리법왕자보살도 만났으며, 약왕보살, 득근정진력보살, 용시보살 등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8만 4천 보살들로 하여금 현일체색신(現一切色身)삼매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 묘음보살내왕품(妙音菩薩來往品)을 설할 때에 4만 2천 천자(天子)가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삼매(法華三昧)를 얻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등장하는 보살들은 모두 부처님 역할을 대행하는 대비의 화신들이다. 이 보살들의 활동의 특징은 삼매에 들어 중생들을 위한 요익행(饒益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장에서 묘음보살이 몸을 자유자재하게 변화시켜 나타나는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32응신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더구나 열반과 같은 법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대비원력이 일체 고통을 여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 고난에 처해 괴로워하는 중생들에게 불·보살의 가피(加被)와 은혜가 미쳐 안락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앙이다. 인본주의(人本主義)와 자력수행을 내세우는 불교에서 초기 소승불교에서는 교리의 이해에 치중하여 번뇌를 끊음에만 몰두 불·보살에 대한 신앙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기 대승불교에 와서 경전을 수지 독송과 함께 암송하는 수행법과 불·보살 명호를 부르는 염불 수행법 등이 나오고부터 예경의례가 생기고 특정 불·보살에 대한 신앙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부터 특히 관음신앙이 널리 민간에 유포되었는데 〈법화경〉 '관음보살보문품'이 관음신앙의 근거가 된다. 이를 의지하여 관음예찬문 등도 지어졌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계율, '규제' 넘어선 바른 행동 내면화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㊵ 의무론과 불교윤리

누구나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수시로 바뀌지만, 어른들은 늘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덕담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부르짖는 공리주의의 문제점은 '이기적인 개인이 공익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이다. 이론적으로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이익은 희생되어야 하지만, 이기적인 개인은 '왜 나만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의아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의 철학자인 헨리 시지윅(Henry Sidgwick)은 칸트 윤리학으로부터 직관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게 된다. 또 보편적 행복이라는 실질적 원리와 함께 몇 가지 형식적 원리를 전제한다. 즉 공정과 평등의 원리인 정의, 합리적 자기애의 원리인 타산, 모든 사람의 선을 지향하는 박애이다. 그러나 타산의 원리와 박애의 원리 사이에는 언제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기적인 개인이 현재의 작은 행복보다 미래의 좀 더 큰 행복,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좀 더 큰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때로 개인의 행복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공리주의와 달리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에 의해 주창된 의무론은 규범론적 윤리체계로 행위 자체의 도덕적 속성으로 모든 규범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다시 말해 어떤 종류의 행동이 언제나 어떤 종류의 환경에서 그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옳거나 그르다고 주장한다. 이는 행위 자체의 속성을 따지는 것으로 동기론적 윤리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론에서는 의무, 즉 의로운 삶과 합리적 이성을 중시하고 이상주의적 경향을 띤다.

공리주의에서의 행복은 행복한 삶과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고 현실주의적 경향을 띠기 때문에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불교에서는 감각적 쾌락의 덧없음을 설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목표인 열반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한다.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 공리주의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살도(菩薩道)는 의무론적 측면이 강하다. 모든 중생을 제도(濟度)하겠다는 보살의 서원은 순수한 동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그 서원은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살은 자신 자신의 깨달음보다는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의 온갖 고난을 기꺼이 감내한다.

어떤 이는 의무론을 형식적이라고 비판하듯이, 불교의 계율도 형식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도의 계율은 단순히 외면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라기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계율을 받아서 실천할 것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의 실천만으로는 내면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행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질책과 격려도 필요하다. 어떤 이는 의무론을 인간의 경향성과 행복을 도외시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판한다.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불교도의 행복을 도외시한 채 보살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 즉 보편적 행복을 추구한다면 자기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보살의 의무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며, 불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이상을 향해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⑯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업 짓는 주체 '의지'는 곧 마음

9. 업의 주체는 자아가 아니라 아뢰야식이다.

불자 여러분! 업의 주체는 자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업을 짓게 하는 주체는 무엇일까요? 〈성실론〉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곧 모든 업의 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존귀하고 마음이 이끄는 바라, 마음이 선·악을 생각하면 곧 입[口]이 말하고, 몸[身]이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업이 무겁다는 것을 알라. 또 뜻[意]에 차별이 있으므로 신업·구업에 상·중·하와 같은 차별이 있는 것이다. 마음이 떠나면 신업과 구업은 없는 것이다."고 하여 신업과 구업은 의업이 이끄는 대로 따라 생멸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모든 업의 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업을 짓는 주체인 '의지'란 곧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심(心), 의(意), 식(識)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에는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등 전오식(前五識)의 마음과 제6 의식, 제7말나식, 제8아뢰야식 등의 여덟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보의 주체인 마음은 제8아뢰야식의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불교 교단 내에서 가장 논의의 초점이 된 것은 바로 '업'과 '무아'가 상충 되지 않게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초기불교시대와 부파불교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특히 부파불교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의 주체이지만 자아는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비달마의 논사들은 궁생사온(窮生死蘊), 유분식(有分識), 세심(細心), 보특가라(補特伽羅) 등의 여러 가지 업의 주체 개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업의 주체이지만 자아가 아니면서 아트만과 다른 '아뢰야식'이란 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10. 아뢰야식이란 무엇인가?

불자 여러분! 아뢰야식이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8아뢰야식은 심층의 마음이기 때문에 표층 마음인 분별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무명 훈습에 의한 아뢰야식은 일반 범부와 연각·성문까지도 능히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아뢰야식은 훈습된 모든 종자를 갖추고 있는 궁극적인 마음의 근원이라고 해서 심왕(心王)이라 불립니다.

〈성유식론〉에서는 아뢰야식에 대해서 만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담고 있다고 해서 능장(能藏)이라고 하고, 다른 일곱 가지 식(識)에 의하여 판단된 모든 정보를 훈습하고 있다고 해서 소장(所藏)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아뢰야식은 무시이래부터 오면서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제7말나식이 진실한 자아인줄 알고 집착하게 만들고 오도되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집장(執藏)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유식론〉에서는 아뢰야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불성(佛性) 그리고 여래장(如來藏)과 아뢰야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불성(佛性)은 범어 buddha-dhātu의 번역으로 '여래성(如來性)' 혹은 '각성(覺性)'이라고도 합니다. 즉 '불타의 본성(本性)'이라는 뜻입니다. 붓다가 될 가능성 인성(因性), 종자(種子) 혹은 미오(迷悟)에 의하여 변하는 일이 없이 본래 갖추어진 성품(性品)을 의미합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이와 같은 불성 있기 때문에 장차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불성은 곧 불(佛)의 원인(原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성을 '여래(如來)의 태아(胎兒)(tathāgata-garbha)' 즉 '여래장(如來藏)'이라고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성·여래장'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여래(佛)가 될 수 있는 종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 속에 있는 '여래의 태아'라고 해서 여래장이라고 불리고, 중생에게 갖춰진 '불의 인(因)'이라고 해서 '불성(佛性)'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62호 | 17 | 전면광고

베를 짜는 북처럼 곧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취득 동참 안내

◆ 포교사, 전문포교사 ◆ 법사, 전문법사
◆ 법계분야 - 대종(선율)사, 종사, 율사, 선사, 종법사, 종무사
◆ 제출된 서류로 평가심사 취득가능

교육부 상학인가 만대 불교학대학원
한국불교수행자연합회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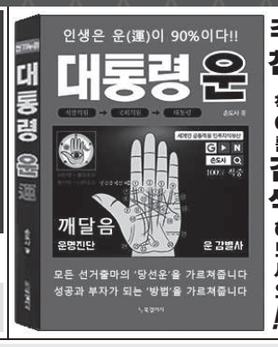
010-5412-8040

단청, 탱화, 개금

사찰신축, 보수, 기와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 작법무, 화청, 살풀이, 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기도하실 분 모십니다.
경주
• • •

010-8908-0488

• • •
비구니스님, 무속보살님 운영자 초대합니다.
유명등산로, 참배객 많음
주변 아파트 밀집
• • •

010-3717-5316

민불종 택일 비법전수

백여가지 길흉신을 가감한 이사·결혼 장례·택일 등을 비법으로 간단하게 해결

장애스님, 보살 무료 역학대통령 ▼ 최다목록

민불종과 인연도 기다림 02-904-3375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모든 것을 마음대로

특수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스님 무속인 환영·성실지도 ◈

문의전화 010-6284-617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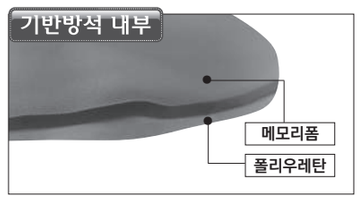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62호 | 18 | 전면광고

병든 사람을 문안하는 것은 나(부처님)를 문안하는 것이요,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은 나를 간호하는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일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양도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올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양산사찰(급)안내

●종교용지, 대지218평
●건평 : 1층요사42평, 2층대웅전 26평, 실사용500평, 시유지포함
●산신각, 심야전기, 지하석수1일150톤이상, 양산시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공원 묘지부근
●건강상 싯가이하로8억5천에 양도함
●가격 : 절충

010-6425-8274

토 굴(급) 안 내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3분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건물 50평
●이마트, 은행, 병원, 시장 있음
●풍광수려, 주차공간 넉넉함
●보1천, 월40만(시설비5백만)
●살아보신 후 양도도 가능

010-7121-3030

사찰안내 가람

●경북 청송 아담한 사찰
●부지 총면적 : 992㎡(300평)
●건물 총면적 : 187.67㎡(56.7평)
●가액 : 2억 5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불자공인중개사 안내

●사찰, 암자, 터, 양도양수 경력많음
●신도 많은 경남·북지역 정보(거래)많음
●일처리가 원만하고 비밀엄수
●성심성의껏 상담합니다

불자업소 공신공인중개사

010-4857-0027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합천군, 무학대사 수행동굴 있는곳
●대지 410평, 임야220평 임법당 13평, 요사채 52평
●가액 : 3억5천만원

010-2078-9595

포 교 당 안 내

●마산 포교당 22평
●롯데백화점 이면도로 앞, 위치 최상
●보300만, 월30만
●1천만원(시설)
●몸만 오시면 됨

010-7169-9878

사 찰(급) 안 내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가액 : 6억 5천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371-5567

고성사찰(급)안내

●종교용지, 대지634평 불교재단 법천사
●1층 슬라브 36평, 화장실 및 창고 3평, 법당 24평, 산신각 3평
●절앞에 저수지 있음, 수도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
●가액 : 1억5천만원, 절충가능
●별도 : 대지 177평, 답 917평 합계금액 2억 7천만

010-3553-2787

예쁜사찰(급)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대지 : 약 200평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0-4999-5622

포 교 당 안 내

●위치 : 포항시 남구 대이로
●4층(65평)남향, 엘리베이터 사용
●법당, 방2개, 상담실, 부엌, 화장실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010-7219-007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근처
●2층 30평
●보증금 : 2천만원 월세70만원
●시설금 : 1천만원

010-2809-8819

암 자(터) 안 내

●위치 : 경남 함양 휴천 남호리 1002, 1005 2필지(관리지역), 총456평
●가액 : 3천만원
●위같은리 1000, 1001 논밭 총794평, 2필지(관리지역)
●가액 : 4천만원

010-9393-4965

사 찰(물품) 안 내

●위치 : 서울 중랑구 용마공원로4길 9
●부처님3분, 절에서 치는 종, 등, 그릇, 상3개
●가액 : 2백만원
●건강상의 이유로 정리함

010-6453-2110

사 찰 안 내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법당 목조 25평, 요사채 콘트리트슬라브 53평, 대지 약 400평, 심야전기
●가액 : 3억 5천
●요양원 하실분

010-5780-1415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 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가액 : 11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9015-4040
010-2077-7820

산자락 외딴집

●위치 : 영천 화산면 소재
●감나무밭 181평 공부방 24평 실내화장실, 온수설치
●가액 : 8천만

010-3505-9509

아름다운 사찰 안내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정자(3×5)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총대지 300평(정원조성 잘되어있음)
●진주, 의령, 합천 중간지점(각20분 소요)
●삼존불, 영당, 신중당,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전체),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와서 보시고 협의(가액), 언제든 양도가능

010-2607-7114

토 굴 안 내

●위치 : 서울 삼각산자락
●약 13평, 인법당, 기도(수행자)적합, 교통편리
●꼬옥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시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보증금 : 3천만원

010-8754-7855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부지 : 5,823평(종교용지, 대지 1,700평 포함) 건물 : 3개동(대웅전, 요사채, 극락전)
●토지, 건물 : 분할가능
●가액 : 21억(분할시 상단 15억, 하단 7억)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4225-0012

사 찰 안 내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2층 42평, 시설금 1천2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 5백만, 월세 30만
●법당, 요사채(2), 공양간, 시설완비(에어컨 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및 공사, 판넬, 도배, 기타 시설은 무료)
●5년전 인수금액 그대로임

주지 무진 010-3049-5816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약 70평 반지층, 임법당
●방1개, 주방시설, 화장실, 샤워실, 냉난방완비(상가 도시가스)
●법당(시설일체)인수 가능한분
●보증금 700만, 월 60만 개인사정 양도함

010-7513-8497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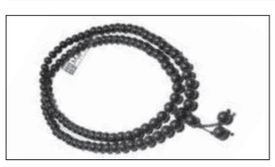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일백팔비금강장왕보살



천수천안관자재보살이 연화부의 과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금강장왕은 금강부의 과덕을 상징한다. 지혜를 완성하고, 일백비에 가지고 있는 각종지물(各種持物)들은 백팔번뇌를 무수히 퇴치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16면은 금강계의 16대보살의 덕을 나타내며, 22면일 때는 6도보살의 덕을 더하게 되며. 금강장왕보살은 금강권보살과 동체가 된다. 왼쪽의 제1수의 현병은 이 병(甁) 안에 만법이 함축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형상 : 청색, 22면 중 최상부에 불두가 있으며, 백팔비에는 각종지물과 수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화대좌에 가부좌를 하고 있다.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⑳ 정신장애인 A씨

장애인, 바른 이해와 배려 선행돼야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란 말에 익숙지 않다. 신체장애가 드러나는 경우에만 장애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신장애는 장애가 아닌 '병'이라는 한계 안에서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신장장애나 심장장애와 같은 내부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법정 장애인등록 정보를 찾아보면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성장애, 투렛장애, 기면증도 정신장애의 범주에 추가되었다. 정신장애인들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약물치료 등 치료를 꾸준히 잘 받으면 일상생활을 무리없이 할 수 있다. 다만 바르지 못한 편견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리수아래 2021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 〈한국-인도네시아〉편에 정신장애를 가진 인도네시아 시인이 참가를 했다. 그의 시는 자신 때문에 슬픈 어머니에 대한 글과 병원에서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했지만, 조현병으로 인해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 다시 일어나 덴파사르 BISAbilitas 장애인 집과 언론 등을 통해 활동하며 글을 쓰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조현병 커뮤니티를 만들어 발리에서 "조현병 환자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단체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시집 속의 이 시인의 글을 읽고 어떤 한 친구가 반가워하며 만나자고 했다. 그녀의 집이 봉은사 근처로 봉은사 산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녀를 위해 봉은사에서 만났다. 봉은사를 한 바퀴 돌고 그녀가 자주 간다는 찻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에도 서너 번 만난 적이 있는 그녀는 인도네시아 시인의 시를 읽으며 시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갔다고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신장애인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꺼리고 자신으로 인해 부모님이 겪는 아픔과 삶의 어려움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녀와 장애는 다르지만 나도 장애인 당사자이니 그녀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는가. 나와 같은 뇌성마비 장애인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으로 인지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녀는 요즘 어떤 기관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홈페이지 운영 업무와 사업팀의 일원으로 업무를 한다고 한다.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그녀는 백지 위에 무엇인가를 그림으로 그려가는 기분이라며 일하는 가운데 느낀 보람과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직장에 들어가 처음으로 업무가 주어져서 진행 중이라 했다. 동료와 윗분들이 그녀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지 사업계획을 잘 세워보라고 하였다고 한다. 사업에 대한 방향과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그녀는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문득 사회에서 자신의 모든 것에 "장애 때문에"라는 타인의 말로 상처를 많이 받은 그녀가 직장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있다면 사업자료와 서류를 찾아 참고하고 전 담당자에게 물어서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동료 중 혹자는 일을 어려워하는 그녀에게 "가을이 되면 더 불안정해진다고 들었는데" 식의 걱정을 하며 '장애 때문에 안 될지도'라는 이유까지 붙이는 이가 있겠다는 에상이 되기도 했다. 모든 게 처음인 그녀에게 자세한 일에 대한 정보나 설명은 해주지도 않은 채로 말이다.

일에 대한 걱정이 태산인 그녀에게 직장에서 해마다 해온 사업이라면 사무실에 서류가 있을 것이니 찾아서 참고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니 작년 자료를 많이 참고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선임 담당에게 업무의 궁금한 점은 주저 말고 물어보라 했다. 누구에게도 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비장애인 담당자라도 난감했을 것이라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편안해진 듯했다. 우리는 흔히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한다. 사실 장애인을 위한 사회환경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더불어 산다는 의미는 장애인들이 더불어 사는 데 장애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듯 일상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따라가야 하는 것을 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는 우리가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차별없이 살도록, 그리고 능력을 발휘 하도록 그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행사에 참여해 시 낭송하는 장애인 A씨.

불자들이 꼭 읽어야 할 『금강경』
산스끄리뜨 완역으로 만나다!

불광미디어 유튜브 저자 금강경 강의

불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금강경』! 그러나 산스끄리뜨 원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가 접한 것은 한역본 『금강경』 이었다. 인도에서 산스끄리뜨와 빠알리어를 수학하고, 연구 모임을 이끌며 부처님 가르침의 원음을 전하는 데 주력해온 봉선사 범어연구소장 현진 스님의 역작인 이 책은 리얼리티가 살아 있는 산스끄리뜨 원전과 핵심을 찌르는 한역본을 세세하게 비교하여 거의 완벽에 가깝게 옮기고, 풍부한 해설을 덧붙여 그 안에 숨 쉬는 가르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산스끄리뜨 원전으로 만나는
원형의 금강경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वज्रच्छेदिकाप्रज्ञापारमिता
현진 역해 | 480쪽 | 양장 |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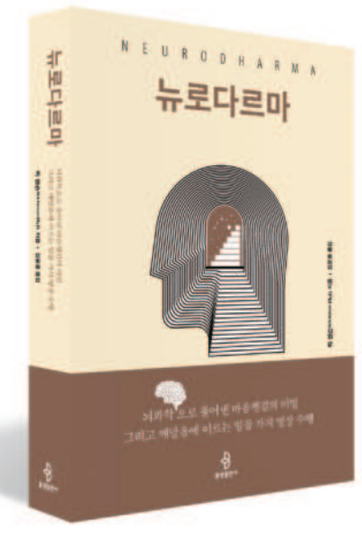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우주, 바다와 함께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3대 미지의 영역인 뇌를 탐색하던 과학자들이
맞닥트리게 된 것은 바로 명상!

최신간

뇌과학과 명상의 관계에 '획기적인(groundbreaking)' 진전을 이룬 작품이라는 과학계의 찬사를 받았던 〈붓다브레인〉은 대중의 관심도 한 몸에 받으며 그해 단숨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29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붓다브레인〉의 릭 핸슨이 〈뉴로다르마〉로 돌아왔다.



〈뉴로다르마〉에 보내는 찬사

심장과 마음을 단련하는 지혜로 가득한 아름다운 길
– 잭 콘필드(『마음이 아플 땐 불교심리학』의 저자)

신경과학과 불교적 수행법 및 철학 양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릭 핸슨은 이 매혹적인 작품을 멋지게 창조해 내었다.
이 책은 마음을 단련하여 뇌를 변형시키고,
건강과 번영으로 이끄는 방법을 보여준다.
– 대니얼 J 시겔(UCLA 의과대학 정신과 임상교수)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슴으로 이끌 실용적이고,
강력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실습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릭 핸슨의 탁월함에서 비롯된다.
– 타라 브랙(『받아들임』의 저자)

뉴로다르마
릭 핸슨(Rick Hanson) 지음 | 김윤종 옮김 | 440쪽 | 20,000원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⑲ 잭 콘필드의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



▶ **한줄 요약**
깨달음은 환희 체험이 아닌 삶 속에서의 마음의 평안함이다.

깨달음은 '환희' 아닌 일상 '행복'



잭 콘필드 (Jack Kornfield)는…임상심리학 박사이자 명상수행 지도자다. 태국, 미얀마, 인도에서 승려로서 수행한 그는 위빠사나를 서양에 전파한 선구자로 손꼽힌다. 저서로는 〈마음이 아플 땐 불교심리학〉,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어려울 때 힘이 되는 87가지 명상〉, 〈마음의 숲을 거닐다〉, 〈아잔 차 스님의 오두막〉 등이 있다.



명상 수행에서 경험하는 기쁨

명상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선정에는 세속의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과는 전적으로 질이 다른 지복감이 따르게 마련이다. 모든 경계선이 사라져버리는 데서 오는 끝없는 자유와 환희는 어디에도 비길 데 없는 황홀감을 선사해 준다.

명상 수행은 주로 나와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한적한 산사에서 이루어진다. 수행자는 세속에 부대끼던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거나 과거에 '나'라고 생각해 왔던 것의 실체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실감하게 됨으로써 마치 감옥에서 일시에 풀려난 것 같은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

잭 콘필드는 책에서 "나는 산에서 살면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날마다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때 가장 놀랍고도 끔찍한 체험이 찾아왔다. 내가 사라진 것이다. 나였던 모든 것이 씻겨 없어져 버렸다. 처음에 나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다.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다. 심지어 '열반'이라고도 부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름 이전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없는 행복이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우주의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물론 전에도 이런 지복감을 느껴본 적은 있었다. 참선하고 난 후 육체적인 통증에서 벗어나면서 지복감의 큰 물결을 느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모든 안달과 몸부림이 사라지고 마음이 하늘처럼 광활하게 열리며 환하게 빛을 발했고, 자유와 깨어남의 황홀한 향기가 가득했다. 나는 마치 붓다처럼, 온 우주의 품에 안겨 몇 시간을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삶의 위대한 진리는 너무나 명확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었다. 그릇된 에고, 작은 자아의 욕망을 좇아 우리는 마치 인색한 지주처럼 부질없는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슬픔에 울었다. 그러다가는 참을 수 없는 웃음이 몇 시간 동안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며, 자신을 열어놓기만 한다면 매순간이 곧 해탈임을 깨달았다. 이런 체험이 있고 나서 여러 날 동안, 나는 이 한결같은 평화 속에 잠겨 있었다. 몸은 붕 뜨고 마음은 비어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사랑과 환희의 에너지가 내 의식을 물결처럼 훑고 지나갔다. 그러다가 통찰과 계시가 하나하나 찾아왔다. 카르마의 패턴 속에서 삶의 스토리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속세의 삶과 쾌락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고 출가한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사실 깨달음은 너무나 환희에 가득 찬 경험이라서, 그에 비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쾌락들은 너무나 시시하며 조잡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출가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얻는 것이다."

자아의 비어 있음 속에서 세계는 투명해지고 명료하고 단순해 진다. 세계와 내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내가 있다'는 존재의 순수한 경험만이, 그 경험을 소유할 누구도 없는 가운데 경험된다.

"모든 것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고요 너머였다. 내가 없었다. 경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에 갖다붙일 말이 없었다. 오로지 앎만이 있었다. 우주는 평화의 대양 속에 잠겨 있었고, 그로부터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졌다. 그것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나는 의식의 본질이 바로 이 광대한 평화임을 깨달았다. 나와 모든 것이 단지 마음 속에 일어나는 한 현상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고 변하고 죽는 이 우주 너머에 이 영원히 존재하는 실재가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더 빛나고 투명하며 기쁨에 빛나고 있었다."

경이로운 것은 삶의자체
저마다 순간순간이 신비
갈망에 끄달리지 않아야

"엄청난 빛과, 무의 광활한 공간이 밀려왔고, 나는 사라졌다. 나는 아무 데도 없었고, 또한 모든 곳에 있었다. 다음 순간 엄청난 웃음과 환희와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으로 나를 몰아온 내 삶 속의 모든 사건들, 모든 몸부림과 두려움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바로 그것이었다."

환희의 유효기간, 그리고 불완전함

하지만 깨달음이 가져다주는 황홀한 체험은 지속되지 않는다. "사랑은 짧고 생활은 길다"고 했던가? 깨달음은 살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 저자거리에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성취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깨달음, 그 뒤의 이야기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잭 콘필드는, 깨달음이 가져다주는 선물들에 주목하면서도, 깨달음 이후에 이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하지만 몇 달 후 이 황홀경이 지나가자 좌절이 찾아왔다. 직장 동료가 나를 배신했고, 가족과 아이들과도 예전처럼 옥신각신했다. 나는 영감에 찬 강의를 할 수 있었지만, 아내에게 물어봤다면 그녀는 남편이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과 매한가지로 참을성 없고 짜증스러워지더라고 말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이 위대한 영적 계시가 거짓이 아니며, 현실의 배후에 늘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전과 그대로인 부분도 적지 않음을 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내 마음과 인격은 옛날이나 다름없고 신경질도 더 나아진 게 없다. 어쩌면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우주적 계시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일상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줄 요법을 찾고 있다."

삶이 가져다주는 슬픔과 배신 앞에서, 그것이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품을 넓힐 수 있을까? 잭 콘필드는 깨달음의 길은 직선이기보다는 나선형 계단이라고 말한다. '깨달음과 열림의 주기가 지나고 나면 두려움과 위축의 시기가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깊은 평화와 새롭게 발견된 사랑의 시간은 상실과 닫힘, 두려움, 배신의 구름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환희와 평정으로 돌아오곤 하면서, 그 품을 넓혀 간다. 두려움과 배신, 상실의 아픔을 지켜보거나 직접 경험하게 되면, '삶의 거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속세의 몸부림을 초월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피신해 들어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인간적 고통의 상처가 없는 곳으로 가는 희망에 매달리는 것은 수행자로 하여금 또다시 이원성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한다.

때문에 깨달음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여행의 첫걸음일 뿐이다. 깨달음을 자신의 새로운 정체로 알고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나는 깨달은 자'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에 갇히게 된다. 깨달음의 빛을 온전히 소화함으로써 삶의 불완전성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하고, '큰 그릇'을 넘어서서 탁 트인 자유인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현존할 수 있어야 한다.

"지혜로운 가슴은 불완전함 그 자체를 포용한다. 지혜로운 가슴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평화롭게 받아들인다. 세상과 씨름하거나 그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편안히 쉰다. 참을성 있는 사랑과 이해와 겸손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것이 된다.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은 '계절의 변화에 만족하는' 도인처럼 된다. 지금껏 찾아 헤맸던 사랑, 그것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또한 자신으로 돌아온다."

진정한 완전함은 불완전함의 반대편에 있는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과 불완전이라는 이원성을 다 담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완전함'이다. 성숙한 영성은 불완전 속에서 완전을 찾는다. 진정한 각자는, 세상을 그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가슴으로 만난다. 몸과 감정과 펼쳐지는 대로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발견한다. 행복의 무지개를 좇고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깨달은 자라고 할 수가 없다. 티베트의 성자 겐둔 린포체는 이렇게 말한다.

"행복을 찾겠다는 노력만이 그것을 찾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것은 아무리 좇아다녀도 잡을 수 없는 찬란한 무지개와도 같고, 개가 제 꼬리를 물려고 도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평화와 행복이 어떤 실제적인 사물이나 장소로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있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한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우리는 진만 다 뺀다. 꼭 쥔 손의 힘을 빼고 손바닥을 펴는 순간 무한한 공간이 거기에 있다. 그것은 열려 있고, 편안하며, 우리를 오라고 손짓한다. 이 탁 트임, 이 자유,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즐기라.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말라. 이미 그대 집안의 화덕 앞에 평화롭게 앉아 있는, 위대한 깨달음의 코끼리를 찾겠다고 무성한 밀림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경이로운 것은 삶 그 자체이다. 저마다 고유한 순간 순간들, 그것이 바로 신비이다. 우리는 별난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다. "먹고, 걷고, 말하고, 보고, 숨쉬고, 똥누는 것, 이 모두가 그 자체로서 경이로운 것이다."

"이 순진무구한 가슴, 우리의 '불성', '영적인 아이', 우리 안의 '거룩한 그것'은 결코 퇴화되거나 상실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갈망의 구름에 가리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 순진무구한 가슴이 일깨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찾아온 것이다. 집에 돌아온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일상의 경이로움을 찬미한다." 〈작가〉

2022년 파송 및 2021년 예비

남·여 군승 장교 요원 모집

포교의 원력을 가지고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장병포교에 진력할 남·여 예비 군승 장교 요원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 사미 / 사미니계 이상의 승적을 소지한 스님
-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이상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스님
- 임관년도 연령이 만 35세(기준: 만 35세 되는 해 1.1일 이후 출생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스님

※ 단,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세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

■ **원서 접수기간 / 접수처** : **2021. 12. 4**(토) 한 / 군종교구 종무실
- 보내실 곳 : (04383)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46 (국방부 원광사 내) 군종교구

■ **지원 및 구비 서류** : 군종교구 홈페이지(www.gunindra.com)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종교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내** : ☎ **02-797-7266** / 군종교구 종무실

불기2565(2021)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대행 스님

자식에게도 착을 두지 마시고 그저 사랑으로써 대해야 합니다

일체가 내 부모 내 자식 아님 없다

질문 선법가 '삼세가 둘 아닌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일체가 내 부모 내 자식 아님 없다 하셨는데 그 이치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배 속에 있는 모든 걸 보세요. 그게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증거물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도 좋고 물에 가도 좋죠? 여러분네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청산유곡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신선하고 좋고, 또 맑은 물이 쉴 사이 없이 흐르는 걸 봐도, 계곡에 가서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가 노는 걸 봐도 싱그럽고 좋지요. 그게 여러분 고향이에요. 수없는 겁을 거쳐서 인간까지 이렇게 모습을 가져왔고 기어 다니다가도 모습을 가져왔고….

지금도 여러분한테 꽁지가 조금 붙었습니다. 꽁지 안 붙은 분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흔적이, 꽁지 떨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말짱 벗어나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으로 살 수 있죠. 생각으로 운전할 수 있고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사람까지 이렇게 맛볼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기다란 유체 같은 게 가요. 그건 이름도 모르죠, 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알을 까서 뒷꽁무니에 질질질질 끌고 가서는, 풀을 갖다가 발로 두껍게 알 밑에다 깔고는 풀로 살짝 덮어 놔요. 그런 걸 하나 보더라도 '야! 요렇게 묘하구나.' 요렇게 묘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 오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하다 못해 요만한 미생물에서부터 그렇게 스스로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까지 돼서도 자식들을 그냥 덮어 주고 입혀 주고 먹여 주고, 이러면서 어디를 나가서 안 들어오기만 해도 안절부절못하고, '빨리 들어와야지.' 하면서 걱정을 하고 이러는 거죠. 아마 거기에서는 좀 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요, 그렇게 거쳐 오면서 모였다 바람처럼 흩어지고 모였다 바람처럼 흩어지고…, 이 식구가 말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또 딴 식구들하고 또 만나고, 진화를 좀 하면 진화한 만큼 또 같이 모이고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적으로 본다면 부모 자식이 따로 없다는 얘기죠. 사는 동안에 같이 모여서 살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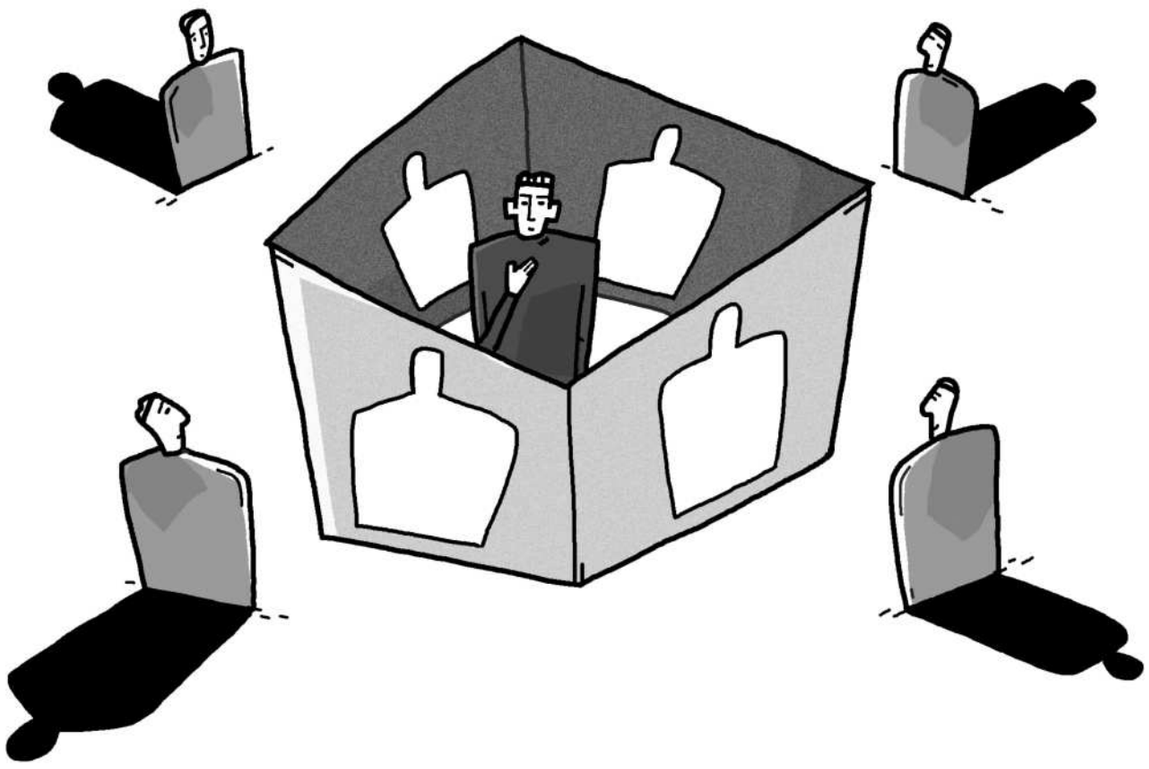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착을 두지 마시고 그저 사랑으로써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온통 "너 어디서 자고 왔어? 전화번호 대!" 뭐, 틀림없죠. 이럭하면 애들이 반항해서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올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었길래 그랬겠지.' 하고 "너 배고프지 않으냐?" 하고 아주 딱 받아서 안아 준다면 나가서 자라고 발길로 차도 나가서 안 자요. 그런데 착을 두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대접을 해 줘야 하는데, 꼭 내 손에 들어 있는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전부 늙어 죽어서 애가 된 거예요. 허허허…. 아니, 여러분도 늙어 죽었다가 또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나이를 조금 더 먹었다고 해서 자기가 생산해 놓은 것을 자기 거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저 남의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 남의 부모든 내 부모든 평등하게, 그저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있으면 보시하고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보시하고, 이렇게 무주상 보시를 해서 그저 남을 이익하게만 한다면….

그리고 또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내가끔 그러죠. 여기 우리 학생들이 올 때가 있죠. "스님! 이러이러한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 때, 평등하게 내 소유라는 것이 없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소유라고만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를 못합니다, 요구를 해야 하니까. 요걸 가지고 이것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넓게 나지도 못하죠. 그래서 어휴, 가슴이 쓰르르하고, 언제 적 내 자식 네 자식이고, 언제 적 내 부모 네 부모더냐. 모였다가 바람결같이 흩어지는 것이, 스쳐 가는 것이 인생 아닌가. 우리는 방랑객으로서 한데 캠핑 나와서 살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흩어져야 할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그런가.

놓고 가는데 주변에서 바보 같다고…

질문 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관하는 것이 잘 이루어져서 환희심이 나더니 요즘은 몸이 아파서 관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도 계속 놓고 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게 바보같이 산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공부해 나가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아이고 참 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글쎄, 어떻게 그렇게 답답해요? 아니, 사람은 마음과 육신이 작용을 하죠? 몸만 있고 마음이 없어도 안 되고 또는 마음만 있고 몸이 없어도 아니 되고 이러죠? 그죠? 그러면 생사윤회라는 게 '죽는다, 산다' 이 양면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죠? 생산이 되고 멸하고 이러는 양면이 없으면 진리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거를 요렇게 해 봤는데 잘됐다, 잘되다가 안된다, 그러면 안되는 것도 그 되는 데서 또 안되는 게 나온다는 거를 아셔야죠.

이거 보세요. 부산을 향해서 차를 몰고 갔는데 부산에서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갈 자리는. 그러면 부산에서 되올 줄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만, 막힌 그 종점에서만 다시금 또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한 번 스르르 돌려서 굴려서, 다시 오고 가고 하는 작용을 스스로 돌려야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어, 잘되는 거를 알려 줬으니까 안되는 것도 법이로다 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는구나. 그러니 그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그냥 되게끔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굴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굴릴 줄 알아야 된다! 기계도 가다가 선 것을 굴릴 줄 모르면, 운전을 못 하면 차가 안 갑니다. 인간도 역시 그렇습니다.

용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저 주인공에 놓으라니까 그냥 놓고만 가고, 뭐, 바보 같고 그렇다 그러지만 왜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부처님께서 묘하고 광대무변하고 똑똑하게 가르치셨는데 아니, 바보같이 왜 삽니까? 하하하…. 할 일을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해라' 이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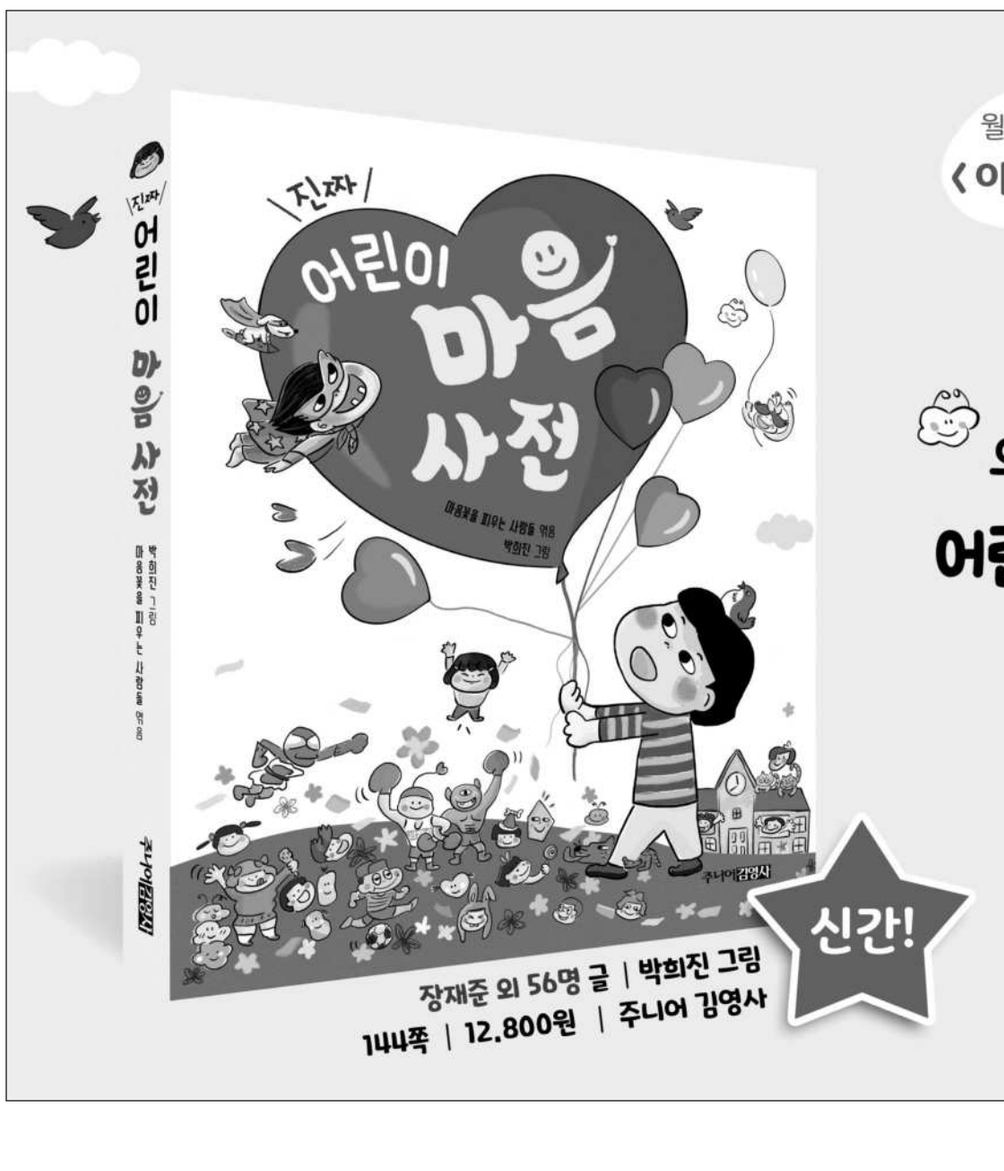
예를 들어서, 저 나무도 뿌리로부터 몸이 있고 가지가 있고 잎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과일을 열리게 합니다. 과일들도 제 나무에서 열린 과일이라야만이, 그리고 제 나무에서 익은 과일이라야만이 제 맛을 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불법이라는 거는 한 나무에 열매 하나가 열리면 만 가지 맛이 난다는 그 맛을 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고 정말이지 자유스럽고 똑똑하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잘못돼서 바보같이 보이고 그럽니까? 여여하게, 소가 잘못 가면 잘 다스려 가면서 좋은 데로, 너도 좋고 나도 좋게 이렇게 다스려 가면서 똑똑하게 가는데 아니, 누가 머저리 같다 합니까? 하하하….

자식에 대한 착 놓기 어려워요

질문 머리로는 착을 놓아야 한다는 건 알면서도 자식이나 가족에 대한 착은 쉬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22면으로 계속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신간!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

고정된 게 없기에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구름 같고 바람 같은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답변 그런데 부모다 자식이다 이런 데 연연하고 애착을 갖고 붙들고 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하지마는 억겁 광년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우리가 도둑질은 안 했겠습니까? 생명을 잡아먹지는 않았겠습니까? 나쁜 짓은 안 했겠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겠습니까? 병신은 안 됐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보면 과거에 모자랄 때 내 모습으로 보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과거에 잘못한 내 모습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속에서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기가 없어지고 유하게 부드럽게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둘 아니게 보라는 거죠.

부모 자식이다 할지라도 한 철 부모 자식이지 그 한 철이 지나면 그대로 뿔뿔이 몸도 다 놓고 갑니다, 제가끔. 원점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또 생(生)해서,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올 때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果)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또 출현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또 딴 부모의 자식이 되죠.

이건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넓게 생각을 할 때 내 부모 아닌 게 어딨고 내 자식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찰나에 인생이 가고, 한 찰나에 인생이 생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요 한 철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모여서 놀러 갔다고 합시다. 모여서 놀러 갈 때는 한 식구입니다. 그리고 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즐거웁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헤어집니다. 다 뿔뿔이 자기 갈 데로 다 헤어지고 그 자리조차도 내놓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의 섭류도 다 그렇단 말입니다. 저 혹성이나 핼리혜성이나 또는 어떠한 별성이든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섭류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래로 쭉 내려다보세요.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토끼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수명이 인간보다 짧고 그렇지만, 수명이 아주 긴 것도 있고 수명이 아주 짧은 것도 있고, 천차만별로 길고 짧고 길고 짧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열 달이 돼야만 낳지만, 6개월 만에 낳는 것도 있고, 석 달 만에 낳는 것도 있고, 몇 주일 만에 낳는 것도 있고 그거는 여러 층으로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자면 기술자끼리 모이고, 농사꾼은 농사꾼끼리 모이고, 배를 타는 사람은 배를 타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끼리끼리들 모여서 살듯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다 놓아 버리게도 하는 그런 장본인인 주인공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으며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수억겁 전부터 생기게 해서 이렇게 인간까지 이끌어 왔는데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허공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이름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형상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스님들의 고깃덩어리인 몸뚱이를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 법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선 쑥 내밀었단 말입니다.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보이시며)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내 중심입니다, 중심! 팔뚝! 중심! 이거는 (주먹을 폈다가 쥐어 보이시며) 오온(五蘊)을 다 쥔 겁니다. 이 쥐었다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 전부 같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만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니 별성이니 달이니, 어느 혹성을 막론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내 살림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며 서로 주고 서로 살리기 때문에, 이 세상 사가 전부 가설이 돼 있는 근본은 바로 내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먼저 알아야 된다. 나 먼저 발견해야 된다. 나 먼저 믿어야 된다. 나는 나를 끌고 다니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거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넌 누구를 믿느냐?" 하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초 하나를 켜 놔도…, 보십시오! 초를 켰는데 한쪽이 기울어지게 타 들어간다면 촛농이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위로다 딱 잘라서 똑바로 해 놓고, 기울어지는 것을 똑바로 세워 놓으면 한쪽이 이그러지지 않으니까 촛농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도 마음으로써 다스리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고삐를 자기가 쥐고, 남의 파밭으로 들어가면 "파밭으로 들어가선 안 돼. 이랴!" 하고, 딴 데로 가면은 "워 워!" 해서 항상 똑바로 가게끔 고삐를 쥐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안 하고 그냥 갈 수는 없는 바로 자기 공부입니다.

내 집에 전화를 먼저 놔야 남한테서 전화도 받고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고서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다. 인과법칙이라든가 또는 유전법칙이라든가 이 모든 생태의 문제들을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나를 알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에 유유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정신계와 물질계를 작용하면서 베풀어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냥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굴려서, 이론으로만 쫙 알아 가지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한 발짝을 떼어 놔도 실천을 할 수 있는 내 심력을 길러서,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체험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꿇어앉았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섰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뭣고?' 하기 이전에 '만법을 들이고 내는 그것이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능가할 수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니까 '그놈이 뭣고?' 하기 이전에 아, 그놈이 하는 거니까 모든 걸 거기다가 되돌려 놔라 이 소립니다.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들이고 내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못났든 잘났든 내가 가는 길인데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 말로, 이론으로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 한 발짝을 떼어 놔도 실천을 할 수 있는 내 실력을 길러서
>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체험하면서 나가는 것이
> 바로 참선입니다.

동생이 빙의된 것 같아요

질문 제 생각엔 제 동생이 몇 년 전부터 빙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속에서 딴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끔씩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 집안인 가족들은 제 말을 무시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잘 낫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살펴 줘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치악산에서 내려와서 여관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관 그 주인이 나를 잘 알고 덕을 봤다고 참 고마워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네 사무실 방에 인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누구가 혼이 세 개가 한꺼번에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어머니더러 하는 소립니다. "야, 이년아! 네가 재산에 미쳐서 아무개도 이렇게 죽이고 아무개도 죽이고 아무개도 죽이고, 죽여서 죽인 게 아니잖아.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었잖아!." 하고선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이 얘길 왜 하느냐 하면요, 요것도 바다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접시의 물 가지고도 바다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요만한 탕깨에다가 꽃 한 송이 꽂아 놓고 선 물을 담아 놨습니다. 물을 담아 놓고 가만히 앉았다가 '여기 봐라. 여기로 가면은 너무나 좋다.' 셋을 다…. 그냥 승천을 하는데 '너희, 일로 들어가 봐라.'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들여다보다 도로 저거하고 요렇게 들여다보다가, 아리송하니깐 그러는데, 금새 큰 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돼서 그냥 연꽃이 피고 그 길이 얼마나 섬세하게 됐는지 고만 셋이 다 그냥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얘기예요. 보이는 데서 얘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얘기란 말입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승천을 하듯이 거기서 반기고 모두 한마음으로 들이니까 인제 얘는 얘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성한 사람으로서 한 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챙피하니 못 오는 거예요, 모두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위법이라는 거, 유위법이나 무위법이나 둘 아닌 도리가 이렇게 광대무변하다 이 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못 하느냐. 관습과 습관이 있어서, 살아오던 습관 때문에, 난 못 한다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려 놓지 않고도 천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차려 놓고 하시냐고 하실 테지만 그게 방편이다 이겁니다, 제 삼자를 위해서 방편.

어떤 때는 신도님들이 "그냥 스님께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굳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이게 더….' 이게 더 책임이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가. 그러나 우리 스님네들도 책임이 중대하거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게 항상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네들한테 말하고 가면은 그렇게 일이 성사가 되고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자기 아닌 자기가, 벌써 이게 비유하자면 원자가, 원자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즉 말하자면은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보살행을 한다 이겁니다.

아파서 금방 저거 하는 사람은, 즉 말하자면 약사보살로다 행을 하고, 또 안되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로다 행을 하고, 명이 짧은 사람은 칠성부처로다 행을 하고, 그래서 그 보살들은 바로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받아서 그냥 하기 때문에 '대행' 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모두들 여러분들도 그 이름, 그 대행이라는 건 이름이고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지 여러분들은 다 이름 없는 이름입니다, 그게 다. 이름이 말해 주는 게 아니고 이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부처로 돼 있다면 그게 어딥니까. 부처라는 건 이 세상을 다 집어먹고 이 세상을 다 집어서 내주고 이러는 게 부처거든요, 아니 되는 게 없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도리를 모르니까 떡이나 하나 해 놓고 지낸다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허허허. 그 떡 하나만 놓고 아무것도 놓지 않고 지낸다면 먹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겠느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령은 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말하듯이 내 마음인데 물에 빠질까 봐 강을 못 건너가리까, 뜨거워서 타 죽을까 봐 못 건너가리까, 또는 지옥이 돼서 못 건너가리까.

아이, 이 여기 문이 꽉꽉 다 닫혔다 하더라도 벽도 없고 봇장도 없어요. 그래서 체(體)을 타고 난 사람들은 고(苦)다. 고를 걸어야 한다. 근데 '고' 하고 '집착' 하고만 없으면, 집착이 고라면 그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거기다 놓고 가면 '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 죠, 뭐. 그렇게 간편한 거를 그냥 써 놓기를 그냥 갈래갈래, 갈래갈래도 천차만별이죠. 많지만 그거를 다 써 놔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러다 보면 뒤죽박죽이 되고 어느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만날 형상과 이름을 찾고 기도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다 맘대로 하시고 갈 수 있어요? 하시고 싶은 대로? 몸뚱이는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못 해요, 한계가 있고. 또 아파도 의욕이 없어지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도 들죠. 그런데 그 모두를, 간편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그대로 구름과 같고 바람과 같고 그렇게 살고 있다. 왜냐하면 고정된 게 없기 때문이죠. 나라고 할 수도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안 했다 했다를 다 놓고 그대로 공한 거니까, 공한 몸이니까 그대로 가라.

여러분들이 그 도리를 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이해가,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갈까 저렇게 해야 이해가 갈까 하고 중두남발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했다 저런 말도 했다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식으로서 집어 먹을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뭐.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현불 논단 |

탄소중립정책, '빛 좋은 개살구'



민정희
국제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총장

10월 18일 탄소중립위 발표한
NDC 상향 · 탄소중립 시나리오
예산 고려 全無, 제도도 불투명
"기후위기 못 막아" 비판 직면해
종교 인사 탄중위 이탈 이어져

기업 수익 모델, 사업 환경 우선
현 정책, '관료형 그린워싱' 전형
기후위기 대응, 국민 참여 필요

우려했던 '폭탄 돌리기식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올해 5월 2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지난 10월 18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 · 의결했다.

회의가 열린 한강 노들섬 앞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탄중위해체공대위가 시위를 열고 '기후위기 못 막는 NDC 제출안 부결, 탄소중립위 해체'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에 따라 최소한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는 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산업계에 발목을 잡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위의 구성과 추진, 운영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종교계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탄소중립위 국민참여 분과위원인 4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 9월 30일 탄소중립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문제 등을 분명하게 짚으면서 사퇴를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가 지적했듯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 예산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고, 탄소중립에 이르는 구체적 경로와 제도적 수단조차 불투명하다. 또한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과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회복 등 온통 녹색으로 위장한 관료 주도형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4대강의 속살을 파헤치고 흐르는 강물마저 막아 악취가 진동하고 녹조라떼가 넘쳐나는데도 녹생성장이라고 강변했던 이명박 정부가 재림한 느낌이다.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세계 1만 5000개의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과학자 수백 명의 총의를 모아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현재 약 100만종에 달하는 생물이 수십 년 내에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결과, 그 피해는 원인을 일으킨 주범인 거대 자본과 기업, 그들에게 편승해 민주주의와 자유, 진보와 복지를 누렸던 북반구의 상당수 시민들보다, 남반구의 국민들과 북반구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여전히 낯설어하는 국민이 적지 않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 공인 선진국이다. 세계 최빈국으로 출발해 1977년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 이후, 2018년도에는 세계 7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에 가입했다. 우리 국민 다수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장시간 고노동과 저임금 등의 불공정 · 불공평 시스템을 감내했거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 그 사이 빈부 격차와 가계부채는 더 커졌으며,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공장의 오폐수 등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이 될 산과 들, 강과 바다 그리고 대기마저 오염시켰다.

그런데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에는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할 '정의로운 전환'은 찾아볼 수 없다.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 제공자인 기업의 목소리만 반영될 뿐 피해자인 국민 다수의 이해와 요구를 온전히 전달할 시스템과 제도는 취약하다. 기후정의의 원칙에 기반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가족이 그립습니다

지난 여름 한 간호사를 통해 인연이 됐던 환자에게 안부 문자가 왔다. '스님 가을비 내리면 더욱 가을이 깊어질 것 같아요.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세요.' 시를 읊조리는 듯한 표현들이 유난히 우수에 젖은 목소리여서 기억에 남는 환자였다.

젊었을 땐 한창 잘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사기와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그 충격으로 건강까지 악화되어 의지할 곳 없이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는 50대의 여성 환자였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언니와 동생이 있었지만 서로 소식을 끊고 단절된 채 살아온 지 10년이 되었다고 한다. 부모님의 산소에 오가며 자매들은 서로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서로의 존재를 알리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런데요 스님, 가족이 뭔지…. 너무 그리워요."라고 말하며 환자는 한참을 숨죽여 울었고 나는 전화기 너머의 흐느낌에 가슴이 아팠다.

참 무어라 위로를 해주어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그저 환자가 토해내는 회한의 눈물과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먼 세상에 가신 부모님들이 보면 얼마나 가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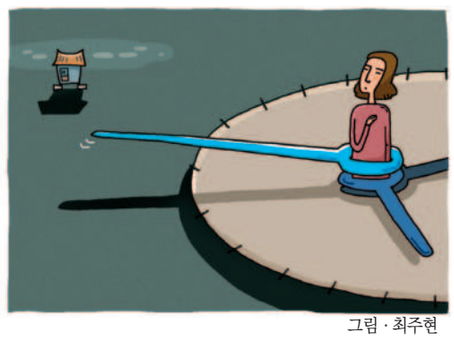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프시겠어요. 힘을 내셔요"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자, 환자는 눈물을 거두는 듯 훌쩍이며, "스님, 며칠 전 꿈에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가 큰 도장을 제게 주셨어요. 그 꿈을 꾸고 '거룩한 만남'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빨리 몸을 추스르고 언니와 동생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보겠다고 다짐하던 떨리는 목소리가 엊그제인 듯 귀에 맴도는 것 같은데 그것이 벌써 지난 여름의 일이 되었다.

'문자를 보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용기를 냈을까' 라는 생각에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환자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소소한 일상의 소식들을 전해주었다. 불자들의 도움 덕분에 고장난 시계같던 '고장난 자신의 인생'이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모처럼 웃음소리를 전했다.

언니와 동생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는지 물었더니 환자는 좀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지금은 아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나중에 보자고요"하고 천천히 얘기했다. 나는 괜히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 미안했다. "아휴, 많이 실망했겠어요." "아녜요. 스님, 그래도 문자를 보내왔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고 감사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길게 그늘을 드리운 환자의 외로움이 전해졌다. 한 시인의 시구처럼.

산그늘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대면 · 비대면 신행, 함께 준비하자

'비대면'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다. 종교도 이 같은 비대면 상황에 빠르게 적응 중이다. 불교의 경우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에 집중하며, 유튜브 법회 · 예불 등을 열고 있다.

비대면에 적응하고 그 편의성을 알게 된 지금, 불교는 '위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응 방안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곳이 월정사다.

월정사는 전국 사찰 최초로 온라인 방송국인 'OWBN'을 개국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OWBN'에서는 월정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있는 사시불공, 〈금강경〉 지도, 참선 등의 콘텐츠를 전부 시청할 수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신행과 수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월정사의 원력은 온라인 방송국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에는 메타버스에 기반한 명상 플랫폼을 선보였고, 사이버 추모관인 '온라인 수목장(가제)'도 준비 중이다.

수행-신행-제례로 이어지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월정사의 일련의 계획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비대면을 선호하게 된 사찰 신도나 불자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겠다'는 목표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앞으로 불교계는 기존의 대면 신행과 새로운 비대면 신행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해 온 월정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당장은 거창한 자체 플랫폼 구축이 아니더라도, 사찰 신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대면과 비대면 신행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신행 환경이 필요한 법이다.

장기적 시각 필요한 종법 제 · 개정

조계종 중앙종회가 11월 2일 개원하는 제222회 정기회에 종법 제개정안 15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눈에 띄는 안건들이 적지 않다.

우선 '재적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은 제218회 임시회에서도 논의됐다가 교구본사 등 공의를 모아 다시 발의키로 하고 철회된 건이다. 과거 조계종은 재적본사 전적이 허용됐지만, 1996년 종단 내 승려의 이동질서를 바로잡고 각 교구 자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승려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이 보완책 없이 즉시 시행됨에 따라 20여년이 지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잖이 발견됐다. 대진 스님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다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입법 당시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삼보정재 유실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법으로 제정됐다. 미등록법인의 도제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은 종단 등록을 독려하고 '의무가 없다면 권리도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부작용에 직면했다. 최소한의 보호체계 없이 넓은 범위에서 권리를 제한하다보니, 법인 등록 절차상 결정 권한이 없는 도제들조차 교육과 수행, 포교 활동에서 제약을 받으며 오히려 탈종단화하는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법원 스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은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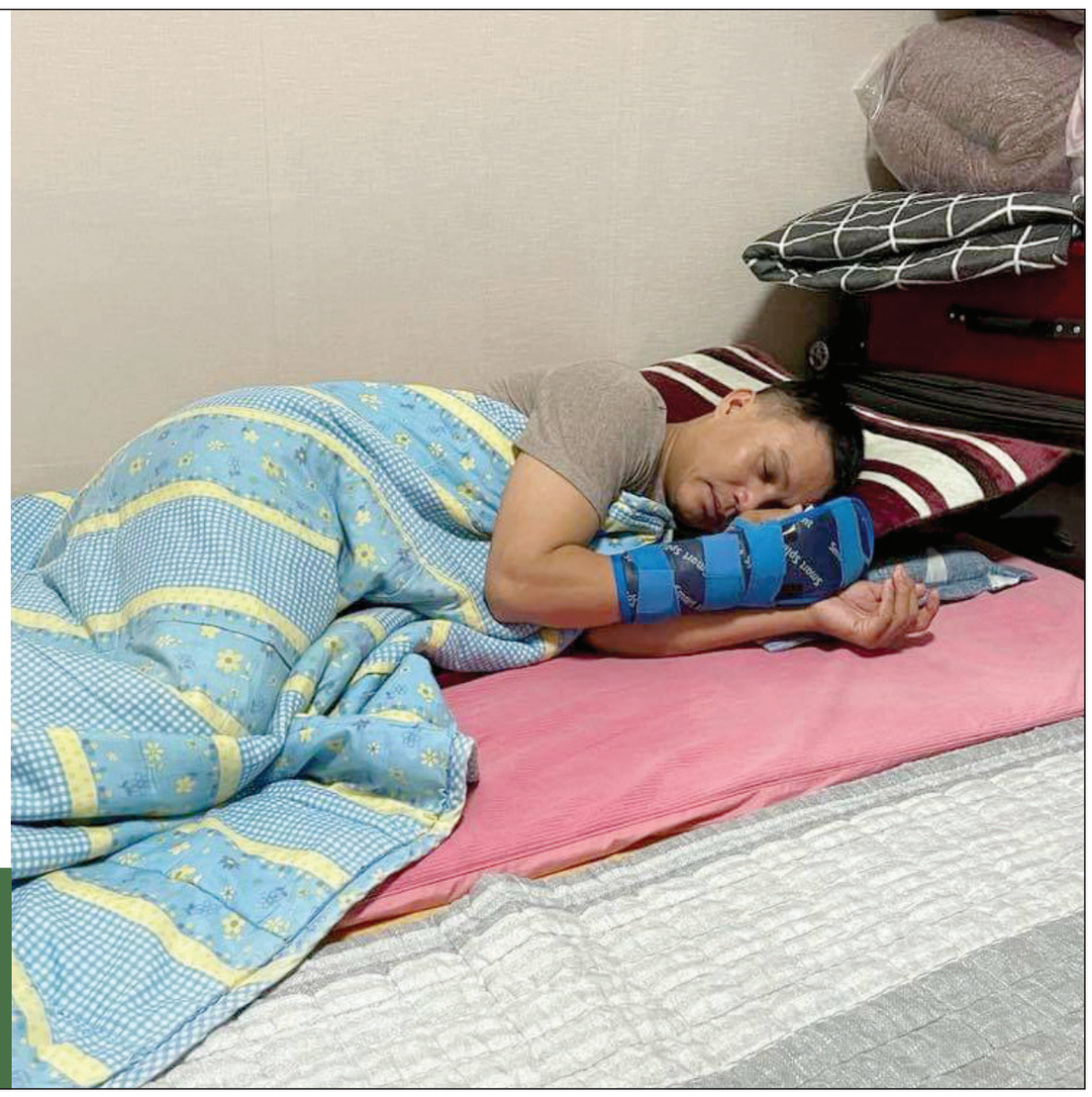
과거의 사례에 비춰 종법 제개정은 더없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도의 고민이 없다면 입법취지와 상충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의 논란으로 또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일일시호일

손가락 잘려나가는
끔찍했던 순간에 매일이 고통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리우띠안씨 기계에 손가락 4개 잘려
해고 당하고 기숙사서도 쫓겨나…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이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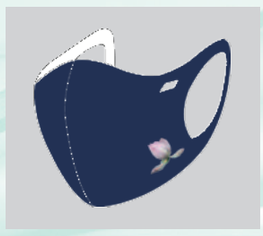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 해외 지원 사업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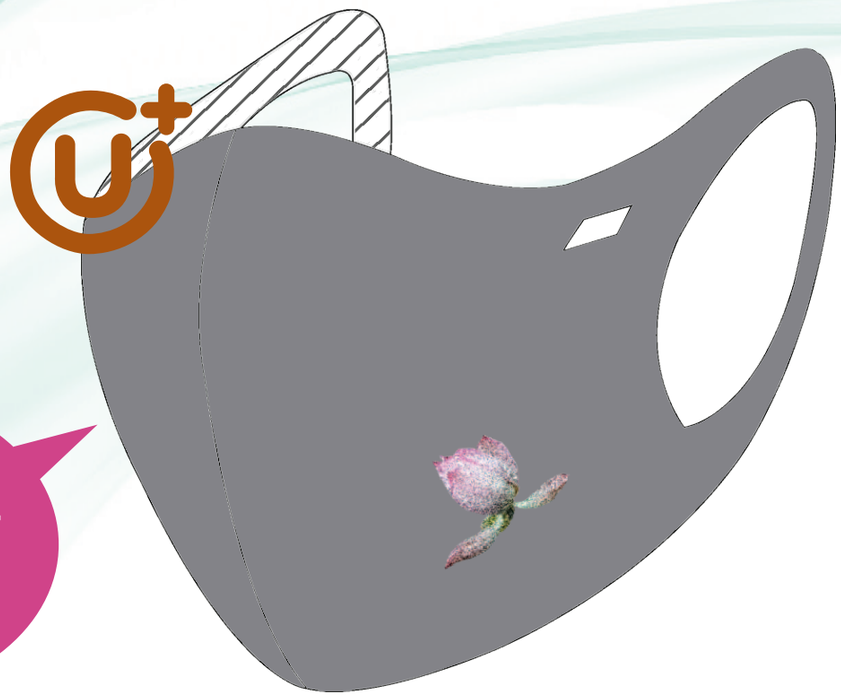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여름용 쿨 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